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 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한국어 복수 표지 '들'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황 아 영

한국어 복수 표지 '들' 연구

A Study on the Plural Marker 'deul' in Korean

201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황 아 영

한국어 복수 표지 '들' 연구

지도교수 최 재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국어교육)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황 아 영

황아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옥미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석 주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 재 희 인

2010년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 서 론·······	1
1.1. 연구 목적과 필요	1
1.2. 선행 연구 검토	3
1.3. 연구 방법 및 구성	8
Ⅱ. '들'의 문법적 지위	10
2.1. '들'의 문법 범주에 관한 여러 관점	10
2.1.1. 의존명사설	12
2.1.2. 통사적 파생접미사설	22
2.1.3. 특수조사설	27
2.2. '들'의 문법 범주	38
Ⅲ. '들'의 의미 기능	43
실수성 3.1. 복수성	43
3.1.1. 명사의 복수성	43
3.1.2. 주어의 복수성	47
3.1.3. 사건의 복수성과 반복성	51
3.2. 집단성과 개별성	54
3.3. 유정성	62
IV. 결 론·······	68
착고무헌	71

ABSTRACT

A Study on 'Deul' of Korean Plural Marker

Hwang, A-young

advisor: prof. Choi Jae-hee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un University

There is an infinite number of words to express numerable and innumerable objects. Words to express numerable objects are categorized into singular and plural. Plural of Korean language has not been organized as a grammatical category as it is not regular. So this study aims to analyse grammatical categories of 'deul' which is frequently used in spoken English and its semantic functions.

Chapter 2 identified the grammatical categories of 'deul' through looking at existing data and dictionaries and discovered that 'deul' is divided into a dependent noun, a suffix, a special postposition, and a colloquial postposition. Then it compared its characteristics with the standards to represent such categories to determin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organize it as a marker. First, 'deul' has definitive idiomatic languages as a

dependent noun. It can not be determined as a general suffix but as derivative suffix as it is combined with phrases as well as words. However, this study decided to accept it as it was thought that it is not necessary to create contrary words such as' 'syntactic' and 'derivative' and a new category instead of existing categories. As 'deul' is well matched with special suffixes in distribution such as nouns, adverbs and inflected words and can have a syntactically structure, it is considered as a special suffix. A colloquial postposition as a sub-category of special suffixes is added to put an emphasis on a colloquial element among functions of special suffixes. Therefore, it is hard to determine the grammatical category of colloquial postpositions by emphasizing only colloquial element.

Chapter 3 discussed semantic functions of 'deul.' To examine nouns which are not matched with deul, they have ambiguous character of singular and plural except the cases for quantitative representation or colloquial elements. Because of such characters of nouns, deul can not freely combined with them. The 'deul' is combined with other components with a subject omitted in imperative sentences. prositive sentences and interrogative sentences, plurality of the subject is transferred to other components, and it has a listener-oriented character. When the plural form of 'deul' is not interpreted into the plural form of the subject, cases are plural and repetition occurs in colloquial cases with time difference. Second, semantic functions of 'deul' have individual relativity. That is, plural forms of 'deul' have both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but individuality has more weight. Unmarked plural has both facets of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but collectivity has more weight. If nouns with collectivity are combined with plural form of 'deul' with individuality, it indicates individuality in collectivity. On contrary, unmarked plural forms with collectivity are combined with nouns with individuality, collectivity has more weight. The third semantic function is animacy. The plural form of deul is used for animate objects rather than inanimate ones, and nouns with more animacy has more individuality. Likewise, it was discovered that plural forms of deul have close relations with individuality and animacy.

This study analysed grammatical categories of deul and its semantic functions. Because of various distribution of 'deul', it can be considered as a dependent noun and a special suffix and it was discovered that its combination does not appear regularly as it has plural forms as well as singular although it is not combined.

I .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세상에는 셀 수 있는 사물을 표현하는 단어와 셀 수 없는 사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 셀 수 있는 사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이면 단수, 둘 이상이면 복수라고 정해져 있다. 이러한 단수와 복수의 구분은 영어에서 잘 나타나는데, 복수일 때명사 뒤에 복수형 어미 '-s'를 붙임으로써 또는 지정된 형태로 변형되면서 나타난다. 또한, 주어가 복수이면 서술어도 복수의 표지가 나타난다. 이처럼 영어의 복수는 규칙적이라서 문법 범주로 성립되었으나, 국어에서는 단수나 복수를 나타내는수의 개념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이지 않아 이와 관련된 복수 표지가 문법 범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는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어떤 표현이 첨가되거나, 형태 변화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들¹'이라는 국어의 복수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쓰지 않더라도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때문에 생략되는 경우가 더 많다.

- (1) 7. A student came here.
 - 나. Students came here.
 - 다. Two students came here.
- (2) 가. 학생이 왔다.
 - 나. 학생들이 왔다.
 - 다. 두 학생을 만났다.

¹⁾ 본래 의존명사로 보는 '들'은 그대로 '들'로, 접미사나 특수조사, 담화토씨로는 보는 '들'은 '-들'로 구분 하여 표기하는 것이 옳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기의 편리성과 '제3장 '들'의 의미기능'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문법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들'로 표기하겠다.

라. 두 학생들을 만났다.

영어에서는 (1나)와 같이 복수 표현을 위해 'student'에 반드시 어미 '-s'가 결합해야 한다. 또한 (1다)처럼 두 명 이상일 때, 즉 복수일 때는 무조건 '-s'를 붙어야한다. 그러나 (2다)에서 보듯이 국어에서는 복수를 표현 할 때, '학생'에 어떤 형태적 변화가 없어도 성립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물론 '학생'에 '들'이 결합한 (2라)와 같은 표현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Ramstedt(1939: 35)는 국어에서 복수를 표시하는 '들'의 출현 현상을 잉여적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보았다(옥정미 2002: 1 재인용). 그러나 '들'이 잉여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국어에서 '들'이 존재할 필요가없고, 더구나 '학생'과 '학생들'을 구분하여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들'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단수와 복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구분이가능하기 때문에 '들'이 존재한다는 관점 아래에서 논의가 진행된다.

국어에서는 영어처럼 복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반드시 복수 표지만을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들'과 결합하는 명사 자체에도 의미가 주어진다.

(3) 가. 사람은 죽는다.

나. 사람들은 죽는다.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3가)의 '사람'은 굳이 (3나)처럼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단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사 자체만으로도 복수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명사에 복수성이 있다면, (3나)처럼 거기에 복수 표지인 '들'이 결합되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복수 표지 '들'이 명사구 이외의 성분에 결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4) 너무(들) 먹지(들) 말고(들) 사이좋게(들) 놀고(들) 있어(들).

(4)에서는 부사, 조사, 어미 등 모든 성분들 뒤에 '들'의 결합이 가능하다. 하나만 결합될 수도 있고 둘 이상 혹은 전부 동시에 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 은 분명 복수 표지 '들'만의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들'은 생략된 주어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도 보기 때문에 문장 의미 파악에 있어 주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기도 하고 사건의 복수성이 나타내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시간의 차이로 인한 반복성으로도 본다.

- (5) 가. 사람들을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
 - 나. 미용실에 머리하러 오는 손님들은 많지 않다.
 - 다. 동생들이 놀이공원에 간다.

(5)과 같은 문장들에는 '들'이 있든 없든 의미상 차이가 크지 않으나, 의미 차이가 전혀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들'의 삽입으로 인해 분명 어떤 의미 기능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들'이 결합된 경우와 '들'이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나타나는 문장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고 '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적 특징을 가진 '들'의 문법 범주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미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여 통합적2)으로 밝힘으로써 '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통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점차 사건구조와 담화적 해석을 추가하였으며, 국어 명사의 의미적 특성과 함께 복수화의 전반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이 더해지고 있다(이영제 2004: 15).

²⁾ 통합적이라 함은 문법 범주와 의미 기능을 동시에 다룬다는 개념으로 쓰인다.

먼저, '들'의 범주에 관한 논의는 최현배(1937/1946)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6) '들'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뒷가지로서의 '들'이니, 위의 보기와 같이, 이름씨의 씨 몸(語驅)에 붙이어 쓰이어, 독립한 씨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완전한 씨의 자격을 가진 것이니, 이는 영어의 etc, 일본말의 など에 해당하는 것인데, 다른 씨의 씨몸(語驅)에 붙이어 쓰히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쓰히느라. 보기를 들면.

사람들, 새들, 아이들

의 '들'은 뒷가지(接尾辭)이니, 그것이 붙은 이름씨의 겹셈(複數)임을 나타내는 것이 요:

개, 소, 말, 들

의 '들'은 독립한 씨이니, 그 나머지를 낱낱이 열거(列擧)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따위 것들이 더 있음을 보이는 것이니라.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들'이 그 앞에 적힌 여러 가지의 사물을 도로 가리키는 일이 없지 아니하지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아예 '들'을 쓰지 아니함이 좋으니라, 곧

갑, 을, 병, 들이 있더라.

에 대하여 보건대, 만약 거기 있는 사람이 갑, 을, 병, 뿐이거든, '들'을 쓰지 아니하는 것이 옳고; 만약 갑, 을, 병, 밖에 도 다른 사람이 있거든, '들'을 써서, 그밖에 또 사람들이 있음을 나타냄이 옳으니라(최현배 1937: 247-249).

이처럼 최현배(1937/1946)에서는 '들'을 명사의 복수를 나타내는 뒷가지(접미사) 와 나머지를 열거하지 않고 나타나는 독립씨(명사)로 구분하였다.

고영근(1974: 16)은 의존명사로서의 '들'의 기능과 접미사로서의 '들'의 기능이 접미사로서의 기능으로 포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명사와의 제약이 없이 가산성이 없는 명사나 부사, 조사, 어미 등에 붙어 복수임을 나타내는 '들'을 보조사로보았다.

임홍빈(1998)에서는 형태적 파생과는 다른 통사적 파생의 개념을 도입하고 '들'이 문법적인 형태소 사이에는 복사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복수 표지 '들'을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3)

그러나 서정수(1994)는 '들'이 체언에 덧붙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정사⁴⁾로 포괄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최미경(2004)은 '들'은 명사(구), 용언, 부사, 활용어미 뒤에 결합할 수 있는 분포상의 특징으로 인해 '들'을 보조사로 처리하였으나 일반 보조사와는 다른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최형강(2005: 273)은 '들'을 보조사라는 전제 하에 부사나 어말어미와 결합하는 '들'이 행위의 참여자와 필연적인 관련성을 맺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그 성분들이 쓰인 문장이 청자를 상정할 수 있는 명령문이나 청유문, 의문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행위 참여자, 즉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자가 상정될 수 있는 것이 '들'의 출현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부사나 어말어미에 결합하는 '들'의 분포에 초점을 두어 체언과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부사어에 '들'이 결합하는 경우는 다루지 못했고,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는 예문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처럼 문법 범주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의미 기능은 그에 비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임홍빈(2000: 45)은 '들'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되돌아보고, '들'의 성격이나 기능에 대하여 사건 복수의 개념과 관련한 개체화의 논리가 유효한 해석을 제공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임홍빈(2000: 46)은 부사나 기타 성분 뒤에 위치한복수 표지 '들'을 간접 복수 표지로 설정하고 주어 복수 표지의 이동을 상정한 것은 모두 대상 복수 관념을 전제로 국어의 '들'을 보려 했다. 임홍빈(2000: 47)은 개별적인 대상이 화자의 인지 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개별 대상 하나하나가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인지 행위의 개별성에 의하여복수를 이루는 대상의 개체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³⁾ 형태적 파생이라는 것을 접사적인 요소가 형태소나 단어에 연결되어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때, 통사적 구성 뒤에 연결되는 구성을 '통사적 파생'이라고 부르고, 그 관련 접미사적인 요소들을 '통사적 파생접미사'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사적 파생접사에는 기존의 모든 조사나 어미들이 포함된다(옥정미 2000: 5).

⁴⁾ 여기서 한정사는 보조사 또는 특수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서정수(1994)는 한정사로 칭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통일성을 위해서 바꾸어 부르도록 하겠다.

전영철(2004)은 '들'-복수형은 합(sum)의 해석을, Ø-복수형은 집단(group)의 해석으로 두 가지 복수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러한 합은 개별성을, 집단은 집단성과연결된다고 보았다. 한국어에서 총칭 표현은 원형 단수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고있고, 총칭명사구는 종류를 지시하며 종류가 일종의 집단에 해당되고 집단은 Ø-복수형에 의해 실현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한국어의 복수형과 단수형은 한정성의 관점에서 중의적이고, 지시사+단순형은 집단적 복수를 지시할 수 있어 한정성이 복수성을 제한하지 못함을 밝혔다. 그러나 비체언에 나타나는 간접 복수 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전영철(2007)은 강범모(2007)의 '들'-복수형은 합을, Ø-복수형은 집단을 주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함에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통합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하였다. 우선 체언+ '들' 구조에서 '들'은 직접 복수 표지로, 체언 이외의 성분+ '들' 구조에서 '들'은 간접 복수 표지라는 것을 전제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으나, 배분성을 나타내는 적극성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직접 간접 복수 표지와 간접 복수 표지 '들'은 함께 부착된 성분의 복수성과 배분성을 그리고 사건의 복수성 또는 배분성을 실현한다는 통합적해석을 하였다. 전영철(2007)은 한국어의 복수 표현을 '들'-복수형과 □-복수형으로 두 종류의 복수형이 있고 이 두 복수성의 차이를 인정한다. '들'-복수형은 그구성 개체들이 개별적으로 인지되는 복수성이고, □-복수형는 그 구성 개체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인지되는 복수성이다.

최동주(2000)는 '들'은 부사어나 문장의 끝에 결합하며 셀 수 없는 명사, 조사 뒤에 쓰인다는 점에서 복수 표지 '들'과 다른 '들'이므로 이를 '들₂'라 칭했다.

백미현(2002: 77)은 무표형 명사와 '들'이 표시된 명사의 의미를 비교하여 한국어 '각각'이 복수 의미의 유표형과 자연스러운 이유와 대명사를 비롯한 한정 명사구의 복수 개념이 무표형과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무표형과 유표형을 집단적(collective) 복수와 분산적(distributive) 복수로 칭하고, 유표형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개체 하나 하나의 경계가 분명해져 다수의 개체들로 분리되는 형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유정물의 개별성을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들'이 유

정물 명사에 흔히 나타나고 정도에 따라 '들'은 그 자체의 복수 개념을 나타내거나 주어 명사의 복수 개념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인칭 대명사의 복수 개념은 유표형만 가능 한 것으로, 명사 어간 중첩형은 복수의 개체들을 연속적으로 파악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강범모(2007)에서는 무표 복수형과 복수 표지 '들'의 의미 차이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고, '들'의 의미적 기여가 무엇인지를 재고하였고 코퍼스에 나타난 '들'의 사용 양상을 살핌으로써 '들'의 의미 규명을 시도하였다.

무표 복수형과 복수 표지 '들'이 모두 복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논리 의미적 분석을 시도한 것을 확장시킨다는 의의가 있으나 국어의 복수의미론 을 제시하기 위해서 명사가 지시하는 종류 및 총칭성과 관련된 심도가 부족하고 부사 와 같은 명사 이외의 요소에 '들'이 붙는 것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 지지 않았 다.

노은주(2008)는 무표형 명사는 단수를, '들'-명사형은 복수를 의미한다고 보고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된 말뭉치 분석을 통해 무표형만으로 된 명사구가 복수형의 의미로 잘 쓰이지 않음을 보았고 수사와 복수 표지는 함께 쓰이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즉, '학생이 시위를 한다.'에서 '학생'은 단수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들'이 결합해 '학생들'이라고 하거나 수량 표현을 첨가해 '많은 학생'과 같이 표현해야지만 복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옥정미(2000)는 현대 국어의 복수 표지 '들'에 대한 범주와 문법화,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의 '들'의 의미와 쓰임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나 주어의 복수성이 어떻게 문장 속에서 나타나는지 정확한 설명과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들'에 대해 흔히 논의되는 의존명사, 접미사, 보조사의 판별 기준에 의해 '들'이 결합 가능한 어사와 분포 및 쓰임으로 미루어 보조사의 범주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견해가 분포상 일치할 뿐 명사구 이외에 연결하는 '들'은 선행어에 의미를 첨가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보조사와 다른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했다.

곽희남(2010)은 복수 표지 '들'의 문법범주와 의미 기능을 논하고 있어 통합적

이해를 가능해 보고자 했으나 그로 인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들'의 문법 범주를 의존명사, 통사적 파생접미사, 특수조사로 나누어 설명하고 어느 하나에 치우쳐 설명하지 않고 '들'과 얼마나 특성이 부합되는지를 논의하였다. 통사적 파생접미사의 '들'과 특수조사의 '들'을 각각 직접 복수 표지와 간접 복수 표지로 명명하고, 이들의 의미 기능을 나누어 살펴보는 통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 의미 기능에 치중하고 있어 문법범주에 관한 사항은 활발히 논의되지 못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연구자에 따른 '들'의 문법 범주를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종합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학자별 '들'의 문법 범주

	최현배	고영근	임홍빈	서정수	옥정미	안효경	최미경	최형강	곽희남
의존명사	0								0
접미사	0	0	0		0				0
특수조사		0		0		0	0	0	0

이처럼 국어의 복수 표지 '들'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문법 범주에 관한 연구보다는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가 보다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래 서 '들'의 사용이 규칙적이지 못한 한계점을 보이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 용하는데 있어서는 의미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문법적 관 점이 제대로 자리 잡았을 때야 비로소 의미 기능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1.3.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들'의 문법 범주에 대해 이원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존명사, 접미사, 특수조사, 담화토씨의 정의와 특성을 먼저 정리하고 기준을 정한 후 '들'의 성격이 그 문법 범주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살펴 볼 것이다. '들'

의 문법 범주를 정하기 위해서 귀납적 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의존명사, 접미사, 특수조사, 담화토씨에 쓰인 예시들을 보일 때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정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들'의 의미 기능을 연구할 때는 기존의 논문을 참고하여 반례를 제시하면서 본 연구의 주장을 내세웠다.

이 연구에서 다룰 전체적인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들'의 문법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의존 명사, 접미사, 특수조사, 담화토씨로의 성격, 특성 및 판별 기준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검증 기준을 세운 후 '들'의 특성과 비교하여 '들'의 문법 범주를 규정하여 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들'에 나타나는 의미 기능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들'의 특성을 복수성과 개별성, 유정성으로 나누어보고 '들'에서 그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 제 4장에서는 본론에서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존재 여부가 흔들리는 '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Ⅱ. '들'의 문법적 지위

2.1. '들'의 문법 범주에 관한 여러 입장

'들'의 문법 범주를 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몇 권의 사전들을 통해 '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장에서는 사전에서 제시하는 문법 범주5)를 보고 그 범위를 정해 본다.

- (8) 『우리말 큰 사전』(1991: 1175)
 - 가. 들²(이)(매이) ① 앞에 들어 보인 사물 모두. (ㅂ) 김씨, 이씨, 박씨 ~ 세분이 왔다 가셨다오. (한)등¹¹. ② 앞에 들어 보인 사물과 같은 그 밖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냄.
 (ㅂ) 서울, 부산, 대구~ 큰 도시에는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한)등¹¹①. (참고)따위①.
 - 나. 들⁵(토) ① 임자씨에 붙어, 그 사물의 수가 '여럿임'을 나타내는 도움토. (ㅂ) 그~, 저~, 우리~, 아이~, 백성~, 나무~. ② 임자시 이외에 붙어, 그 월의 임자말 되는 사물이 여럿임을 나타낸다. (ㅂ) 어서~가시오. 이리~오시오. 빨리 걸어~ 봅시다, 어찌나 튼튼~한지….[〈둘]
- (9) 『표준국어대사전』(1999: 1742)
- 가. 들³「의존명사」((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 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 책상 위 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들을 가방에 넣다/ 과일에는 사과, 배, 감 들이 있다. 등⁵ (等)①·따위①.
- 나. 들⁵ 「조사」 6)((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요소,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 는 보조사. ¶ 이

⁵⁾ 본 연구에서 말하는 범주는 언어와 관련해서 의미, 기능, 형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부수적으로 접미사를 의존명사나 특수조사와 대등하게 다루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이는 '품사'라는 용어로는 접미사와 담화토씨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범주는 '들'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범주간의 혼동을 보인다는 것과 관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⁶⁾ 여기에서 나온 조사를 본 연구에서는 '특수조사'로 명칭하며 이후 연구의 직접 인용한 용어를 제외하고 는 '특수조사' 라고 통일하여 쓰도록 하겠다.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들 있어라./ 다들 떠나갔구나./ 다 떠나들 갔구나./ 아이들부터 태웁시다./ 안녕들 하세요?

다. -들⁹⁷⁾ 「접사」((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사람들/ 그들/ 너희들/ 사건들.

(10) 『연세 한국어 사전』(1999: 565)

- 가. 들² 「의존명사」[같은 무리에 속하는 것들을 열거한 다음에 쓰이어] (그와같은) 여러 가지. ¶장독대 옆 꽃밭 가에는 맨드라미, 분꽃, 봉숭아꽃들을 기르고 있다./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이라고 한다.
- 나. -들⁵ 「접미사」①[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여럿임을 나타냄. ¶사람들/ 할일들/ 여 느 여자들/ 젊은 아이들. ②[복수 대명사 뒤에 붙어] 여럿임을 강조 함. ¶그네들/ 저희들/ 우리들. ③[부사나 용언의 활용꼴 뒤에 붙어] 그 행위의 주체가 여럿임을 나타 냄. ¶ 어서들 오세요./ 아직 자고들 있네./ 안녕히들 가세요./ 앉으세요들.

(11) 『민중판 밀레니엄 새로나온 국어대사전』(2000: 746)

- 가. 들² 「의존명사」두 개 이상의 명사 특히 인칭(人稱)대명사를 벌이어 말할 때 맨 끝의 명사 아래에 붙어서 그 여러 명사의 낱낱을 가리키거나, 또는 그 여러 명사 외에 같은 종류의 말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등(等). and so forth ¶ 김씨·박씨·이씨~ 세분이 중역이오. 거리에는 버스·택시·트럭~이 달리고 있다.
- 나. -들「접미사」어떤 말 뒤에 붙어서 '여럿' 또는 '여럿이 제각기'의 뜻을 나타내는 접 미어. ¶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12)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2002: 683)

- 가. 들² 「의존명사」((같은 무리에 속하는 명사를 열거한 다음에 쓰이어)) (앞에 늘어놓은 것들과 같은) 여러가지. 등(等). 따위. ¶ 소·말·돼지·닭 들을 가축이라고 한다.
- 나. -들「접미사」①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복수임을 나타냄. ¶ 사람들./ 나무들./ 그들./ 자네들. ②복수 대명사에 붙어, 그것이 복수임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냄. ③((일부 부사 뒤에 붙어)) 동작의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냄. ④((일부 용언의 활용형에 붙어)) 동작의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냄. ¶ 아직 자고들 있네./ 참 좋아들 한다./ 자, 모두 들어오시게들.

⁷⁾ 접미사로서의 '들'은 '-들'과 같은 표기를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자의 직접 인용문이거나 선행연구검토가 아니면 '-들'이라고 표기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말 큰사전』(1991)에서는 '들'을 조사로 처리하고, 『연세 한국어 사전』(1999), 『민중판 밀레니엄 새로나온 국어대사전』(2000), 『동아 새국어 사전』(2002)들에서는 '들'을 의존명사와 접미사로 구분하여 처리하였고, 접미사에 조사의 내용을 함께 넣어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들'을 의존명사, 접미사, 조사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위에 사전들만 보더라도 '들'의 문법적 범주에 관한 문제가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의대로 의존명사, 접미사, 특수조사로서 '들'이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살펴보고, 명확하게 규정해보겠다. 사전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조사로 처리하기에 애매한 담 화적 요소로서의 '들'도 포함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처럼 범주 구분이 명확히 설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들'이 의존명사, 접미사, 특수조사 등이 기능, 의미 형태면에서 많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어 서로간의 변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타당성 있는 '들'의 범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의존명사, 접미사, 조사의 성격과 특징으로 판별 기준을 정리하여 검증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준에 '들'이 얼마나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비교 분석하여 '들'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2.1.1. 의존명사설

2.1.1.1. 의존명사의 검증 기준

한국어의 명사에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항상 수식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고 그 의미가 쉽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전자를 자립명사이라 하면, 후자를 의존명사8)로 구분된다.

^{8) &#}x27;의존명사'라는 용어는 의존성을 부각시키는 용어이기도 하고 학교문법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존명사는 문장 안에서 다른 수식성분과 항상 결합하며, 실제로 이들 수식 성분 없이 나타날 수 없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김나영(2006: 12)은 선행 성분에 의존해서만 명사로서의 통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불완전 명사(불완전한 이름씨)'란 명칭은 최현배(1934)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형식명사'란 명칭은 정렬모(1946)에서 처음 사용 하였으며, 의존명사'란 명칭은 김민수(1960)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자립명사와 비교하여 사용한 통사적 의존성을 강조한 것이다(옥정미 2000: 15 재인용). 여기서 보더라도 의존명사는 의존성과 실질적의미를 내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존명사에 대한 설명은 연구자에 따라 그 기준이나 정의, 성격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달라 송보경(2000), 고영근(1970), 임동훈(1991), 손춘섭(1992), 서정수 (1996), 김나영(2006)의 다양한 설명을 가져오기로 하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모아 검증 기준을 만들어 볼 것이다.

- (13) 의존명사의 정의(송보경 2000: 13)
 - 가. 불완전한 이름씨란 것은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 곧 제 홀로는 쓰이지 못하고 항상 어떤씨(관형사)나 풀이씨의 어떤 꼴(관형사형)이나 어떤씨 노릇을 하는 이름씨 아래에 붙어 쓰이는 이름씨를 이름이니(최현배 1955)
 - 나. 의존명사는 실질의 뜻이 없고, 다만 문법적 기능이 명사와 동일하다. 혹은 형식명사 나 의존명사라고도 한다(김민수 1971).
- 다. 불완전 명사란 그 뜻이 불완전하고 문(文)내(內) 자립성이 완전하지 못한 의존명사를 뜻한다(성광수 1986).
- (14) 의존명사의 성격(고영근 1970: 34-35)
 - 가. 선행어에 의존성을 띤다.
 - 나. 선행어가 관형사형이어야 한다.
 - 다. 통합관계가 제약적이다.
 - 라. 조사를 취한다.

연구에서도 '의존명사'로 쓰기로 한다.

- (15) 의존명사 식별의 기준(임동훈 1991: 21)
 - 가. 의존명사는 앞의 선행어에 통사적으로 의존적이어서 선행어와의 사이에는 속격조사 만이 올 수 있다.
 - 나. 의존명사는 형식적 의미를 띠므로 복합어 형성에 참여하기 어렵다.
 - 다. 의존명사는 혼자서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 라. 의존명사는 일부 제한된 격조사하고만 결합한다.

다음으로 손춘섭(1992: 16-23)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판별 기준을 정리하였다.

(16) 목록 설정 기준

- 가. 의존명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문두에 올 수 없으며, 관형어(용언의 관형형, 체언, 관형사 등)의 선행을 필수 조건으로 함으로써 통합 환경에 제약이 있는 어휘여야 한다.
- 나. 의존명사는 조사와 결합하고, 굴절의 핵이 될 수 있으며, 문내에서는 주요 구문으로 서 기능할 수 있고, 관형화 구성에서 보문소의 수식을 받는 표제 명사로서 내포문을 모문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어휘여야 한다.
- 다. 의존명사는 수사와 공기할 수 없는 불가산 명사여야 한다.
- 라. 의존명사는 독자적으로 실질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문맥적 의미만을 지니며, 다른 요소를 대신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어휘여야 한다.
- 마. 의존명사는 독자적으로 실질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문맥적 의미만을 지니며, 다른 요소를 대신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어휘여야 한다.
- (17) 의존명사의 분포 환경(서정수 1994: 399-419)
- 가. 으뜸기준 :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의 관형어와 어울린다.
- 나. 보조기준 : 의존명사는 일반으로 그 뒤에 조사나 지정사를 수반한다.
- (18) 의존명사의 식별기준9)(안효경 2001: 170)

<주요 기준>

가. 의존명사는 자립성이 없으며 선행 성분과 결합하여 음운론적 단어를 이룬다. 따라서

⁹⁾ 김나영(2006)의 의존명사의 식별기준은 의존명사를 식별하는 기준은 의존명사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설정한 것이다.

선행어와의 사이에는 어떤 형태도 개재될 수 없다.

- 나. 의존명사 중 일부는 자립명사와의 복합어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파생어의 어근으로는 기능할 수 없으며 의존명사끼리의 복합도 가능하지 않다.
- 다. 의존명사는 선행 성분에 통사적으로 의존적이다. 선행성분으로는 체언, 체언+의, 관형사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수사나 부사 등은 선행성분으로 올 수 없다.
- 라. 의존명사는 실질적 의미가 약하고 추상성이 높은 어휘이다. 따라서 의미를 제한하고 보충해 주는 선행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보조 기준〉

- 가. 자립 형식에서 문법화에 의해 전화된 의존명사는 원형식과 의미적 유연성을 가지지 않는다. 나. 의존명사는 기본적으로 격조사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의존명사에 따라 조사 결합이 자유로운 것과 제한된 격조사만 결합하는 것과 그리고 조사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 다. 의존명사는 의미적인 이유로 관형사형 어미 및 상위문의 서술어와 공기 제약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논의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의존명사의 정의, 성격, 판별기준으로 다양하게 제시하여 보았다. 의존명사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시된 것은 자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성을 띤다는 점과 의존하는 선행 대상이 관형어로 이루어졌다는 점, 실질적인 뜻이 없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였다. 이러한 점은 의존명사를 다른 경계 범주와 구분 지을 수 있는 검증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9) 의존명사의 검증 기준
 - 가. 의존성이 있음.
- 나. 선행 성분의 관형사형이 나타남.
- 다. 선행 성분과 의존명사 사이에 휴지가 있음.
- 라. 후행 성분의 조사가 있어야 함.
- 마. 수사와 통합되지 못함.
- (19가)와 (19나)를 보면, 의존명사는 선행 성분에 의존해서만 명사로서의 통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존명사 단독으로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없고 반드시 의미를 제한하고 보충하여 주는 선행 요소에 의존하여서만 문맥에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19가)와 (19나)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들'이 (19)의 검증 기준을 만족한다면 의존 명사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들'을 분석하여 (19)와 일치하는지를 아래에서 논의해 보겠다.

2.1.1.2. 의존명사로서의 '들'

의존명사의 검증 기준을 잣대로 하여 의존명사의 대표적인 성격인 의존성(19가)에 대해 '들'을 설명해보자. '들'은 표준국어대사전(1999:1742)의 정의에 따르면, 앞에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들'은 의존하는 대상에서 일반 의존명사와는 차이가 있다. 의존명사인 '것'을 예로 들어보면, '것'은 '예쁜 것', '새 것'처럼 활용되는데, '예쁜'과 '새'라는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관형어의 수식에서 '사람 것', '지우개 것'과 같이 체언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언과 어울리는 '들'의 선행 요소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의존명사 검증 기준(19나)를 확인하려면, 먼저 의존명사의 선행 성분으로 올 수 있는 종류를 서정수(1994)의 정리로 파악해 보고 그에 빗대어 의존명사에 선행하는 성분이 '들'의 선행에도 올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0) 의존명사에 선행하는 관형어(서정수 1994: 403)
- 가. 관형사 : 이, 그, 저, 새, 헌, 옛, 모든
- 나. 용언의 관형사형 : <용언+관형사형 어미 '-ㄴ/-은, -ㄹ/-을'>읽는, 좋은, 읽은, 읽을
- 다. 체언의 관형사형 : <체언+의> : 책의, 내, 네
- 라. 체언 자체
- 마. 용언의 명사형 : <용언+명사화소'기'> : 먹기, 읽기

- (20') '들'이 의존명사라고 가정하고 삽입한 결과
 - 가. *옛/*모든/*저/*새10)/*헌/*옛/*모든 들
 - 나. *읽는/*좋은 들
 - 다. *책의/*내 들
 - 라. 사람. 책(명사)/*그(대명사)/*하나(수사) 들
 - 마. *먹기/*읽기 들

'들'은 의존명사에 선행하는 관형어 중 (20라), 그것도 (20라)의 명사 하나에만 허용되고 그 외의 관형어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들'이 제약성이 크다고 전제할지라도 의존명사에 선행하는 관형어가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의존명사의 범주에 넣기 힘들어 보인다. 이 부분은 최미경(2004:200)의 주장과 일치하는데, '들'이 '관형어+의존명사'의 구문을 취하지 못하고 '명사(구)+들'의 형식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명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춘섭(1992)은 의존명사를 체언, 용언, 관형어의 여러 품사 뒤에 올 수 있어야 하지만 통합 환경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들'은 용언이나 관형어와 같은 품사에 적용이 힘들지만 명사 뒤에서는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들'의 제약이 있는 통합 환경이 용언과 관형어의 결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제약성이 크다고 하여 의존명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들'의 통합 환경의 제약성을 크게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체언이 단독으로 관형어라는 범주에 들어가서 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의존적인 성격과 의존하는 대상이 체언이라는 부분은 의존명사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고 접사, 조사에서도 나타나는 특성과 동일하여 '들'을 의존명사라고 판별하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 (21) 가.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들을 가방에 넣다.
 - 나. 과일에는 사과, 배, 감 들이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1999: 1742), 밑줄은 필자)

¹⁰⁾ 여기서 '새'는 조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낡지 않고 성한 물건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21가,나)의 예문에서 '들' 앞에 '공책, 신문, 지갑', '사과, 배, 감'이라는 명사구가 놓인 점으로 봐서 관형어가 존재하고 자체적으로 쓰이지 못하며 명확한 뜻이 아닌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보인다.

(21') 가.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들을 가방에 넣다.나. 과일에는 사과, 배, 감들이 있다

위의 (21')는 (21)과 같은 예문으로 보이나, (21'가)는 '지갑', (21'나)는 '감'이라 는 체언과 '들'을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 것이다. 별 생각 없이 읽게 되면 (21)과 다른 의미가 없는 듯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21'가). (21'나)는 접미사이기 때문이다. 접미사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처럼 의존명 사와 접미사는 띄어쓰기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미경(2004: 199)은 띄어쓰기 를 기준으로 의존명사와 접미사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최미 경(2004)의 말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기준으로 했거나 범주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21가), (21나)와 (21' 가). (21'나)는 같은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 띄어쓰기의 차이로 인해 (21가)는 '공 책, 신문, 지갑'과 함께 그 이상의 것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공책, 신문, 지갑'이 세 가지 이상의 물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공책, 신문, 지갑'이외의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인지, '공책, 신문, 지갑'이 셀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사물인지, 또는 둘 다의 경우인지는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둔 다. 그러나 확실히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구별을 위한 내용이었다면 구체적 으로 설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21'가)는 '공책, 신문, 지갑'은 '공책이 여러 권, 신문이 여러 권, 지갑이 여러 개'라는 의미로 각각 또는 모두 복수를 의미하기 때 문에 접미사로 설정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의존명사 '들'의 비슷한 말에 의존명사 '등'과 '따위'가 제시되었는데, '들', '등', '따위'는 앞에 수식 환경에 명사가 온다는 점이나, 바꾸었을 때 의미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존명사의 범주에 있는 '등'과 '따위'처럼 '들'도 같은 의존명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들'이 의존명사 '등'과 '따위'와 같은 의존명사라는 것을 정확히 분석 · 확인해보기위해 『표준국어대사전』(1999: 1758)의 정의를 인용하였다.

(22) 등5(等)[등:](표준국어대사전 1999: 1758)

「의존명사」① ((명사나 어미'-는'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 울산, 구미, 창원 등과 같은 공업 도시/정치, 군사, 경제, 사회등 여러 면에 걸친 개혁/주인공의 성격이나 행동 등이 잘 나타난 대목/강과 도로가빠져 있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지도.② ((명사 뒤에 쓰여)) 열거한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내거나 그것들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 남부군 사령부의 주최로 거리가 가까운 전남, 전북, 경남 등 3도 유격대의 씨름 선수를 초빙하여 씨름 대회를 열었다. 《이병주. 지리산》(비)①등3·따위①.

'등'은 명사와 관형사절을 선행 성분으로 취하는 의존명사로 관형사절에 결합할때는 관형사형 어미'는'만이 올 수 있다. 또 동등한 항목을 나열한 뒤에 쓰이며 '등'이 지시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항목 외에도 더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화자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안효경(2001: 165)은 설명하고 있다.

'등'과 '들'을 비교해보면 선행요소에서 어미'는'의 유무 이외에는 거의 유사하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들'은 어미'는' 뒤에는 쓰일 수 없다. 그러나 의존명사의 통합 환경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들'이 어미'는'과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의존명사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들'을 의존명사의 범주에 넣는 것도 무리가아니다.

- (23) 가. 윤옥, 아름, 수연(이) <u>등</u>과 같이 모임을 만들자.
 - 나. 참치, 고등어, 굴비 등은 생선입니다.
 - 다. 관객은 꽃, 케익, 편지 등을 배우에게 주었다.
 - 라. 그는 열심히 청소하는 등 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 (23') 가. 윤옥, 아름, 수연(이) 들과 같이 모임을 만들자.

- 나. 참치, 고등어, 굴비 들은 생선입니다.
- 다. 관객은 꽃, 케익, 편지 들을 배우에게 주었다.
- 라. *그는 열심히 청소하는 들 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23)는 '등'이 첨가된 문장이고, (23)에 '등'을 빼고 '들'을 적용시킨 것이 (23')이다. (23가, 나, 다)는 자주 사용되는 문장이 아닐지라도 비문은 아니었다. 이는 유정성 문제로, '등'은 유정성과 무정성의 경계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쓰이는 반면에'들'은 상대적으로 무정성보다는 유정성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등'에 비해 어색한 면을 보인다. 그러나 나열한다는 개념 아래에서는 같은 현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23'라)는 '들'이 어미'는' 때문에 성립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따위의정의도 살펴보자.

(24) 따위 (표준국어대사전 1999: 1792)

「의존명사」①((명사 뒤에 쓰여)) 앞에 나온 것과 같은 종류의 것들이 나열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따위의 가전제품/ 텃밭에 상추, 호박, 고추 따위를심었다. ②((명사, 대명사, 어미'-는'뒤에 쓰여)) 앞에 나온 대상을 낮잡거나 부정적으로이르는 말. ¶아버지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내 괴로움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너 같은 놈 따위가 뭘 안다고 남의 일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냐?/ 최고니 뭐니 하는 따위의말로 환심을 사려 하다니.(비)①들³·등⁵(等)①.

'따위'는 선행성분으로 지시관형사, 명사구, 관형사절 모두를 취할 수 있는 의존 명사로서 (24) '따위'를 살펴보면 ①의 의미와 '들'이 맞아 떨어지므로 ①만을 가지 고 설명할 것이다.

- (25) 가.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따위의 가전제품
 - 나. 텃밭에 상추, 호박, 고추 따위를 심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 1792)의 예문, 밑줄은 필자)

- (25') 가.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들의 가전제품
 - 나. 텃밭에 상추, 호박, 고추 <u>들</u>를(을) 심었다.

(25)은 '따위'의 정의에서 나온 예문으로 '따위'의 자리에 '들'을 삽입해 본 결과 (25'가)를 빼고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웠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정성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유정성은 아래의 'Ⅲ. '들'의 의미 기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반대로 '들'이 사용된 예문에 '들'과 '따위'가 올 때는 큰 제약이 없이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6) 가. 책. 공책. 연필 {들. 등. 따위11)} 학용품이 많다.(서정수 1996: 475)
- (27) 가. 이씨, 박씨, 김씨 <u>들</u>이 왔다.
 나. 쌀 보리 조 <u>들</u>은 곡식이다.
 (손춘섭 1992: 43, 밑줄은 필자)
- (27') 가. 이씨, 박씨, 김씨{따위, 등}이 왔다.나. 쌀, 보리, 조 {따위, 등}은 곡식이다.(손추섭 1992: 43)

위의 예문은 (27)에 '들'을 빼고 (27')처럼 '들'의 자리에 '등, 따위'가 왔을 때이다. 대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았다. 여기서 '들'이 의존명사 '등'과 '따위'에 비해 제약이 크다는 것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의존명사의 검증 기준(19라)은 위의 예문 (27)을 살펴보면 바로 드러난다. '들' 뒤에는 '이'와 '은'이라는 조사가 따라 붙는다는 점만 보더라도 '들'은 의존명사로서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19마) 수사와의 통합성도 확인해보 면 '들'은 '한, 두, 세, 네' 등의 수관형사와 함께 올 수 없다는 것에서도 의존명사 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들'은 관형어가 아닌 명사와 결합한다는 점 외에는 의존명사로 부합하는

¹¹⁾ 서정수(1996: 475)에서는 '따위'는 없었으나, 본 설명에는 필요하여 추가 삽입했다.

것 같지만 현대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유정성과 제약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의존명사 '등'이 '들'을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의미에 있어서도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 한 사물 모두를 가 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12)"}에서 열거라는 한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쓰임이 많이 적은 편이다.

'의존명사로서의 '들''은 논란의 중심에서 뒤로 빠진 추세로, 이는 '들'을 의존명 사로 인정하는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 그에 비해 들'을 접미사나 특 수조사로 보는 견해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1.2. 통사적 파생접미사설

2.1.2.1. 통사적 파생접미사의 검증 기준

접사¹³)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¹⁴)시키는 일과 한 단어의 굴절만을 담당하는 일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 국어에서 접미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미'라는 문법요소와 구분되는 한 낱말의 일부인 파생접미사를 가리킨다고 보여 진다. 우선, 파생접미사 의 설정 기준, 특성을 정리해 보고 '들'이 파생접미사에 성립하는 지를 따져보겠다.

- (28) 파생접미사의 특성(고영근 1974)
 - 가. 의존성
 - 나. 특수성
 - 다. 어휘성
 - 라. 조사나 어미와의 통합에 제약이 없음

^{12) 『}표준국어대사전』(1999: 1742)

¹³⁾ 임홍빈은 접사라는 표현을 썼으나, 본 연구의 논의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접미사로 통합하겠다. 이후 다른 연구자의 표현에서도 접사가 나오면 통일성을 위해 접미사로 고쳐 쓰도록 하겠다.

¹⁴⁾ 파생 : 어근에 접사가 붙어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는 형태론적 과정.

- (29) 파생접미사의 설정 기준(하치근 1993)
 - 가. 조어력(파생력)
 - 나, 특수성(분포, 뜻, 기능상)
 - 다. 의미상으로 상응하는 다른 말과의 교체가 가능(어휘성)
 - 라. 씨끝이나 토씨와의 통합에 있어서 제약이 없음.
 - 마. 뿌리와 파생접미사 사이에는 분리성이 없어야 함.
 - 바. 의존성
 - 사. 월 안에서 분명한 「임자-풀이」짜임새를 이루고 있으며 문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굴 곡 접사이며, 어휘성이 파악되면 파생접사이다.
- (30) 파생접미사의 특성(심혜령 1998)
- 가. 지배 범위가 단어를 넘지 못하며, 단어 내부의 요소인 어근이나 어간과 관계를 맺는다.
- 나. 자립성이 없으며 어기와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단어를 이룬다.
- 다. 결합할 수 있는 어기는 통사적 의미적으로 매우 제약적

파생접미사는 위에서 보듯이 지배 범위가 단어를 넘지 못하는데, '들'의 경우에는 명사와 명사구에도 형성하기 때문에 지배 범위가 파생접미사보다 넓다. 그래서 '통사적'이라는 말을 앞에 두어 '통사적 파생접미사'라 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통사적 파생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파생은 본질적으로 형태론적인 개념이나, 국어에는 형태론적인 파생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접미사적인요소가 존재한다(임홍빈 1998: 59). 접사적인요소가 형태소나 단어에 연결되어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형태적 파생이라고 할 때, 통사적 구성 뒤에연결되는 접미사를 통사적 파생이라고 하고, 관련 접미사적요소들을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라고 한다. 형태론적인 접미사들이 어휘 고도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임홍빈(1998)에서 주장하고, 이를 어기는 것이 통사적 파생접미사라고 보았다. 통사적 파생접미사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의존성이 있고 조사나 어미의 통합에 제약이 없으며 선행 선분과의 분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생접미사로 보일 수 있으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고 어기가 제약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는 굴절접미

사(조사)로 보기도 한다. 이런 두 기능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봐서 굴곡 파생 접사라고 하치근(1989)은 보고 있고 임홍빈(1998)은 '통사적 파생'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이 형태들이 형태적 파생접미사라기보다는 통사적 기능을수행하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모든 조사나 어미들도 통사적 파생에 포함시키고 있다.

(31) 접미사의 어휘 고도 제약(임홍빈 1998: 40) 파생어를 이루는 접미사적인 요소는 독자적으로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할 수 없다.

접미사 앞에 체언외의 성분이 온다면 그것은 통사적 구성이며, 접미사의 어휘 고도 제약을 어기는 것으로 관계 구성에 접미사가 독자적으로 참여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2) 통사적 파생의 성격(임홍빈 1998: 35)

어휘적 의미를 온전히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문법적인 요소가 통사적 구성 뒤에, 통사적인 연결 장치의 도움 없이, 연결되는 것을 '통사적 파생'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러므로 파생접미사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의미적인 제약을 탈피한 것이 통사적 파생 접미사이며 파생접미사의 성격에 단어뿐만 아니라 그 문장의 주어까지도 영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추가 되었다. 통사적 파생의 성격을 토대로 통사적 파생 접미사를 다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33) 통사적 파생접미사의 검증 조건(임홍빈 1998: 35)
- 가.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문법적 특징을 지닌다.
- 나. 단어와 형태소 외의 다른 성분에도 결합이 가능하다.
- 다. 파생접미사와 선행 성분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 올 수 없다.
- 이 검증 조건 외에 조건은 파생접미사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검증된

다면 '들'은 통사적 파생접미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1.2.2. 통사적 파생접미사로서의 '들'

'들'의 통사적 파생접미사로서의 성격을 파악하기에 앞서 통사적 파생접미사 검 증 조건이 맞는 형태를 찾아서 먼저 살펴보자.

- (34) 가. 까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 나. 그는 최고라는 찬사를 받은 연예인답다.

(34)의 '것'은 의존명사로도 보았으나, '까마귀가 떨어지는'이 있어 통사적인 구성이 나타남으로써 의존명사가 아닌 통사적 파생접미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답'도 '연예인'뒤에만 연결된 요소가 아니라 '최고라고 찬사를 받은'과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통사적이고, 문법적 요소이며, '연예인'과 '답' 사이에는 다른 성분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통사적 파생접미사로 볼 수 있다. 구 이상의 단위를 파생시키는 형태소는 접미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던 것은 형태적 접미사를 의미한 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35) 가. 사람들

- 나. 모자들을 샀다.
- 다. 공부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재능이라도 키워야 한다.
- 라. 나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부럽다.
- 마. 모든 일에 매우들 열정적이다.

(35가)는 명사에 '들'이 쓰인 경우, (35나)는 목적어에 '들'이 쓰이는 경우, (35다)는 명사구에 '들'이 쓰인 경우이다. (35가,나)는 형태론적 접미사로서 '들'이 쓰였다고 말할 수 있다. 파생접미사의 예로 '욕심-쟁이, 지우-개, 울-보'의 '-쟁이, -개, -보를 들 수 있는데, 이처럼 선행 성분(어근)과 파생접미사 사이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사람-들, 모자-들'과 같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35다,라,마)의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35다)의 '사람들'만 놓고 보면 체언에 '들'이 붙어서 접미사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공부에 흥미가 없는'이라고 하는 명사구가 붙으면서 입장은 달라진다. 또한 (35마)의 경우에도 부사구에 '들'이 연결 된 것이다. 즉, '들'은 통사론적 기준에 의해 다양한 위치에 올 수 있기때문에 형태론적이 아닌 통사적 파생접미사로 보아야 한다.

(36) 가. *[[두 [책들]]

나. [[[두][책]][들]]

(임홍빈 1998: 51)

(36가)는 성립하지 못하는 구성으로 보여 지나 형태적 파생접미사로서 본다면 가능한 구성이다. 그러나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사구와 연결되는 통사적 파생 접미사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을 통사적 파생접미사로 보아야 한다.

- (37) 가. 저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든다.
 - 나. [[저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든다.
 - 다. [저[사람-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든다.
- (38) 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든다.
 - 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든다.
 - 다. [야구를 좋아하는][사람-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든다.

(37가,나), (38가,나)는 직접 성분 분석을 한 것으로, 명사구 전체에 '들'이 첨가되고 (37다)는 명사를 복수로 만든 다음에 '저'라는 수식어가 달라붙은 형태로 옳은 직접 성분 분석이 아니다. 이처럼 '들'은 어근이나 낱말에 붙는 형태론적 요소가아니고, 구 성분에 덧붙는 통사론적 요소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예문이었다. '들'을 비록 통사론적 결합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성분에 문법적 기능 부여나 기능 변환을 가져오지 못하고 단순히 선행어의 복수 표지의미를 첨가해 줄 뿐

이기 때문에 조사로도 보기 힘들어 다른 접미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바로 굴곡 파생 접사, 다른 말로는 통사적 파생인 것이다.

2.1.3. 특수조사설

우선 특수조사의 상위에 있는 조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김현석(2006: 13)은 조사를 "주로 체언에 붙는 의존형태소로서 문내 서술어와 상관되는 명사어의 직능 표지 및 의미를 더해주는 형태소"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조사에는 기능에 따라 체언에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여 격표지 기능을 하는 격조사와 문법적 격관계 보다는 어떤 의미기능을 더해주는 특수조사, 둘 이상의 명사를 접속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접속조사로 나뉜다.

이 장에서는 '들'을 조사의 하위분류인 특수조사와 담화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담화토씨의 개념에 적합하다고 보고 이 둘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1.3.1. 특수조사설

2.1.3.1.1. 특수조사의 검증 기준

특수조사는 그동안 연구한 학자들에 따라 도움토씨, 보조(조)사, 한정사, 후치사 등의 용어로 쓰였고 그 의미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아래의 설명은 이지현(2006: 3-4)의 연구에서 한정사, 후치사, 특수조사를 설명한 것이다. 한정사라는 용어는 김영희(1974), 서정수(1994) 등의 논의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한정적인 요소라는 점에 중점을 둔 것이다. 후치사라는 용어는 명사나

동사와 같은 실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어원적 특성을 중시하여 사용된 용어이다. 보조사라는 용어는 최현배(1937)의 도움토씨와 같은 맥락으로 신창순(1975), 남기심·고영근(1993), 허웅(1995) 등에서 사용되었다. 특수조사는 채완(1977), 홍사만(2002) 등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홍사만(2002: 19)은 "조사 체계 내에서 의미와 기능, 형태 등의 총제적인 관점으로부터 격조사와는 확연한 상이성과 특수성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특수조사'를 채용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특수조사는 분포와 기능을 잘 나타내 주고 있지만 곧 격조사를 기준으로 그보다 특수한 조사라는 뜻을 내포한다. 그 특수성은 단순한 의미보조의 영역만이 아닌, 체언과 서술어를 연결해 주는 통사적 기능과 담화론상의 언어 장면, 화자의 입장, 감정 요소에 따른 습관까지 포괄한다고 김현석(2006: 14)은 설명한다.

이처럼 용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라는 용어에서 격과 관련된 기능을 갖는 것과 무관하게 의미적인 기능을 가지는 조사들을 기술한다는 총괄적 인 측면에서 특수조사로 명칭한다. 또한 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해 한정사, 후치사, 보조사를 모두 동일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특수조사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앞서 살펴본 '2.1.2. 통사적 파생접미사설'에서 임홍빈(1998)은 명사나 명사구뿐만 아니라 어미나 조사 뒤에 오는 '들'까지도 통사적 파생접미사로 처리하였으나서정수(1994), 허웅(1995), 채완(1996), 옥정미(2000), 최미경(2004), 최형강(2005)에서는 특수조사¹⁵⁾로 처리하였다.

여기에서는 특수조사의 개념 및 특성을 바탕으로 특수조사의 기준을 세워 보고 '들'의 성격과 비교하여 '들'을 특수조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연구할 것이다. 지금부터 더 구체적으로 특수조사의 성격과 판별 기준을 살펴볼 것이다.

(39) 특수조사의 정의

- 가. 특수조사는 문법기능어가 아닌 선행어귀의 의미한정어이다.(김영희 1974: 301)
- 나. 특수조사는 체언에 붙어서 일정한 격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뜻을 가미해 주는 그것이 붙은 성분의 뜻을 여러 가지로 보조하는 구실을 하는 조사이다. 이 특수

¹⁵⁾ 옥정미(2000), 손동원(2000), 최미경(2004), 최형강(2005) 등에서는 '보조사'라는 용어를 썼고 '보조사' 보다는 '특수조사'의 의미가 본 연구와 더 적합하기 때문에 '특수조사'로 용어를 통일함을 앞에서 밝혔다. 또한 직접 인용할 경우도 통일하여 쓸 것이다.

조사는 체언에 뿐 아니라 부사나 용언에도 첨가 될 수 있다.(신창순 1975: 8)

(40) 특수조사의 설정 기준(임홍빈 1999: 23)

- 가. 특수조사의 후보 요소 뒤에 격조사의 쓰임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것은 보조사에서 제외 한다.
- 나. 후보 요소가 앞의 단어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은 보조사에 제외한다.
- 다. 필요한 요소를 보충하여 그 본래의 의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특수조사에서 제 외하다.
- 라. 어휘-의미론적인 제약이 강한 것은 특수조사에서 제외한다.
- 마. 특수조사는 동일 명사구에 대하여 한 조사구 구성에 두 번 이상 쓰이는 일이 제약된다.
- 바. 조사 구성 속에 쓰일 수 있는 것은 형태적 접사가 아니다.
- 사. 기원적으로 전형적인 보조사와 함께 이루어진 구성은 특수조사에 포함시킨다.

(41) 특수조사의 성격(홍사만 2002: 19-20)

- 가. 분포상으로 체언 이외에 용언, 부사 아래에도 직접 연결될 수 있다.
- 나. 격표지로 사용될 수 없고, 여러 가지 격에 통용된다.
- 다. 고유의 어휘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라. 변형의 과정에 있어서 삭제되는 경우가 없다.
- 마. 구문적인 직능을 가지지 않는다.
- 사. 어원적으로 실사로부터 전성된 것이 많다.

(42) 특수조사 판별 기준16)(최우혁 2002: 13)

- 가. 여러 격에 통용된다.
- 나. 체언 및 용언의 활용형, 부사에도 결합된다.
- 다. 통사적 구성에 결합된다.
- 라. 선행 체언과의 결합에서 어휘적 특수성을 가지지 않는다.

위의 개념, 성격, 판별 기준을 보면, 공통적으로 특수조사는 선행어에 의미를 더해주고 다른 조사들보다 분포가 자유롭고 체언, 부사, 용언, 그리고 구 단위의 구성

¹⁶⁾ 최우혁(2002:13)의 논문에서는 특수조사 판별 기준의 성과와 한계였으나 본 연구의 주제인 특수조사 로서의 '들'을 확인하는 것에는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에도 결합이 가능하여 어느 자리에 두루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수조사를 다른 경계 범주와 구분 지을 수 있는 검증 기준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43) 특수조사의 검증 기준

- 가. 체언과 부사, 용언 아래에서도 결합이 가능함.
- 나. 구 단위의 구성에도 통사적 결합이 가능함
- 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였을 경우 의미가 변함.
- 라. 격을 나타낼 수 없고 생략하여도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는 않음.
- 마. 여러 격의 자리에 두루 쓰일 수 있음.

2.1.3.1.2. 특수조사로서의 '들'

'들'의 문법 범주를 정하기 위해서는 (43)의 특수조사의 검증 기준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된다. 우선 (43가)와 같은 분포상의 특징을 나타내지는 논의해 보도록하겠다.

(44) 가. 어서 잠들 지거라.(명사류)

- 나. 다들 시험을 보았구나.(부사류)
- 다. 놀이동산에서들 잘 놀았니?(조사류)
- 라. 지나들 가는구나.(연결어미류)
- 마. 소풍은 갔어들?(종결어미류)

이처럼 '들'은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의 활용형, 부사, 문장의 끝부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의존명사, 접미사에 비해 분포상의 특징이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또한 '들'이 특수조사라면, 특수조사의 검증 조건(43나)처럼 단어와 구 단위의 구성에도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는 통사적 구성임을 잘 보여주는 예문이다.

(45) 가. [세상에는 가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 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 다. 이번에 [선을 보려고 나오는 분]들은 굉장한 미인이다.

(45가)는 '것'에만 결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가지고 싶은 것'이, (45나)는 '죽어가는 사람', (45다)는 '선을 보려고 나오는 분'이 '들'과 결합하여 구 이상의 결합이기 때문에 통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43나)의 특수조사의 기준에 '들'이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특수조사의 검증 조건인 (43다)도 나타난다. 크게 부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들'에는 복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연구자들에 따라 어떤 요소의 복수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임홍빈(2000)에서는 '들'이 선행요소의 복수성을, 그 요소가 포함된 사건의 복수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고 부사 뒤에 연결된 '들'은 부사가 포함된 사건의 복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의 'Ⅲ. '들'의 의미 기능'에서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중심적인 부분만 말해보면 '들'이 선행요소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의미를 전제로 하여 '들'이 다른 위치로 이동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특수조사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는가 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전이되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어의 의미까지 통사적으로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특수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행 요소에 통합되어 의미를 덧붙이는 것은 격조사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문은 '들'의 주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이다.

(46) 가. 감기에 걸려서들 오랜 시간 아팠다.

나. 생일 파티 분위기를 즐기고들 있었다.

(46)에서 주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들'로 인해 주어가 복수임을 알수 있다. (46가)는 '내가 감기에 여러 번 걸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46나) 역시 파티 분위기를 즐기는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 (46') 가. (나는) 감기에 걸려서 오랜 시간 아팠다.
 - 나. (나는) 생일 파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46)에서 '들'이 생략이 된 것이 (46')으로, 주어와 사건의 복수라는 그 고유한 의미가 사라졌다. 다시 설명하면, 주어가 복수가 옮겨진 '들'을 생략하게 되면, 문장의 주어가 달라지므로 문장의 의미가 바뀌게 된다. 이때는 문장의 주어만 바뀌어, 의미만 달라질 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지 않으므로 (43라)도 성립하게 된다.

- (47) 가. 이 아이만(이) 장기자랑에 나갔다.
 - 나. 그는 남의 몫까지(를) 조용히 처리했다.
 - 다. 힘을 많이 쓰는 씨름도(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들'도 목적어 명사구에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해 보고자 위의 예문에 특수 조사를 '만', '까지', '도'를 빼고 '들'을 삽입한 결과가 아래와 같다.

- (47') 가. 이 아이들(이) 장기자랑에 나갔다.
 - 나. 그는 남의 몫들(을) 조용히 처리했다.
 - 다. 힘을 많이 쓰는 씨름들(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격조사를 임의로 덧붙인 것 이외에 어색함 없이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들'을 특수조사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47')에서 격표지 '이', '을'을 생략하고 '들'만 있다면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들'은 격표지로의 기능이 없음이 나타난다. 그러나 의 문문, 청유문일 때처럼 구어체를 쓸 때에는 가능하다. (47')를 예를 들어 '이 아이 들, 장기자랑에 나갔니?', '남의 몫들 조용히 처리했니?', '힘을 많이 쓰는 씨름들 할 수 있니?' 바꿀 수 있다.

특수조사의 검증기준(43마)을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 (48) 가. 느릿느릿한 잠꼬대 같은 대화들이 끊어졌다.
 - 나. 부모님들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아팠다.

(48가)는 '들'이 주격의 자리에서 쓰이고, (48나)는 '들'이 목적격의 자리에서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들'이 격을 나타낼 수는 없으나, 여러 격의 자리에 두루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특수조사가 여러 자리에 두루 쓰일수 있다는 특징을 지녔고, '들' 또한 여러 격에 두루 쓰일수 있으므로 '들'의 범주를 특수조사로 보아도 될 것이다.

검증 기준 다섯 가지 이외의 보조적으로 특수조사임을 검증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문맥적 의미, 즉 '들'은 접속형태와의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 특수조사는 접속 형태로, 이끌리는 구나 절 전체에 의미적으로 제약을 준다.

(49) 가. 그 사람들은 놀리면서들 친해진다.

나. 너희는 웃겨서들 웃었니?

이처럼 '들'역시 각각 접속 형태에 덧붙고 그 접속 형태로 이끌리는 구나 절 전체에 의미적으로 강조의 제약을 준다. 또한 특수조사는 특수조사끼리 어울려서 쓸수 있는데, 이점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강조의 의미로 쓰인다.

- (50) 가. 너희까지만 시작해라.
 - 나. 너희끼리도 싸우니?
 - 다. 집집마다들 소란스럽다.
 - 라. 전쟁에 학생부터들 참여해라.

(50가), (50나)는 특수조사'까지'와 '만', '끼리'와 '도'가 결합하여 쓴 것이고 (50다,라)는 '마다'와 '들', '부터'와 '들'이 결합한 것이다.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들'을 특수조사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처럼 '들'을 특수조사로 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분포상의 특수성과 선행 요소의 범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채완(1995)에서는 '들'이 구 이상의 단위에도 붙으

며, 체언을 비롯해 부사나 용언의 활용형, 어근에도 연결되는 분포적 특성이 나타 난다. 또한 그 의미도 선행 어기뿐 아니라 주어에까지 미쳐서 단어를 뛰어넘는 통 사적 기능을 들어 특수조사로 처리하고 있다(최우혁 2002: 30 재인용).

2.1.3.2. 담화토씨설

2.1.3.2.1. 담화토씨의 검증 기준

조사¹⁷⁾란 낱말 또는 어절에 붙어 그 말의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어떤 뜻을 더해 주는 것으로 이원근(1999: 116)은 정의한다.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선행어에 기대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형태적으로 선행어에 종속되지만 통사적으로는 선행어의 통사 범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조사 중에는 그런 선행어와 지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들'을 특수조사가 아닌 다른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경향은 구어적인 현상으로서, 문어적으로 끌어드리려는 것으로 보이며 '들'은 도움토씨와 비슷하지만 통사적 특성을 가지지 않고 성격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담화 차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들'의 문법 범주에 담화토씨¹⁸⁾ 를 넣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에서는 따로 검증 기준을 두지 않을 것이다. 특수조사의 검증 기준과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담화적 성격을 넣은 것뿐이기 때문이다.

2.1.3.2.2. 담화토씨로서의 '들'

¹⁷⁾ 이 장에서는 '담화토씨'라고 명칭하였기 때문에 조사를 토씨라고 불러야 맞지만, 본 연구에서는 혼동을 막고자 조사라고 통일하여 사용하고 '담화토씨'는 명칭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

¹⁸⁾ 이원근(1999)은 토씨(조사), 도움토씨(보조사, 특수조사), 자리토씨(격조사), 임자씨(체언), 어찌씨(부사), 씨끝(어미), 얹음씨(관사), 임자자리(주격), 부림자리(목적격) 등으로 쓰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편이를 위해 현재 쓰고 있는 말들로 바꾸어 쓰도록 하겠다. 그러나 '담화토씨'의 경우에는 이원근(1999)이 규정한 단어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래도 쓰기로 한다.

앞에서는 형태적인 요소를 중요시 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들'을 형태론적 결합 관계를 떠나서 특수한 구문론적 기능을 보이기 때문에(손동원 2000: 160) 특수조 사와는 다른 문법 범주로 설정했다. '들'이 단순히 선행명사에 첨가되지 않고 명사 구를 포괄하여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들'은 일 반 조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구문론적 기능으로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 미에서 군말¹⁹⁾로 보는 경우도 있고, 모든 조사의 끝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담화 요 소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본 장에서는 '들'을 담화적 기능으로 보고 설명하고 자한다.

최동주(2000)에서도 특수조사 '들²⁰⁾'의 삽입 원인이 담화적인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담화적 요소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그는 '들'이 문법적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담화 요소라는 것은 문법적인 제약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들'을 담화토 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 (51) 가. 모두들 집에들 빨리들 가거라, 들.
 - 나. 아버지께서는예 아침에예 회사에예 가셨는데예.
 - 다. 쇤네는요 아무런요 잘못도요 없습니다. 요.
 - 라. 나는 그자 엊저녁에 그자 영화관에 그자 갔었는데 그자.
 - 마. 이 제품은말이죠 올해말이죠 새로말이죠 발명 특허를말이죠 받았는데말이죠.

(홍사만 2002: 108. 밑줄은 필자)

홍사만(2002: 107-108)에 의하면 '들'은 담화 요소인 '요'와 '예', '그자', '말이죠' 같은 맥락으로 '들'이 담화 요소인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51)의 '들', '예', '요', '그자', '말이죠' 등이 담화 시 화자와 청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언어 장면을 나타내거나 화자의 담화적 의도를 습관적으로 표시할 때 쓰는 첨사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들을 습관 첨사 또는 상황 첨사로 보았다. (51)를 자세히 설명

¹⁹⁾ 김종택(1982)에서 등장한 말로,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군더더기말이라는 뜻이다.(네이버국어사전)

²⁰⁾ 최동주(2000:68)은 '들'을 편의상 '들' 감고 부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들'로 용어를 통일한다.

하자면, (53다)의 '요'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반복될 수 있으며 수의적인 요소이다. 어디에 출현하든 별다른 의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담화적 요소로 보고 '들'도 그렇게 지정할 수 있다. (51다)의 문장 중간에 나타나는 '요'가상대방을 높이는 경우에만 쓰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상대 높임'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들'도 주어와 주어 이외의 성분이 복수일 때 나타나지만이들이 복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삽입된 성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런 담화토씨²¹⁾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담화토씨의 가장 큰 특징인 담화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게 되면 특수조사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다른 문법 범주인 담화토씨로 보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또한 '들'은 어느 자리에든 제한 없이 나타날 수 있고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어적으로 봤을 때 한 문장 내에 둘 이상 나타나면 어색해 보인다. 그러나 구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점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조사가 아닌 담화토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52) 가. 너희<u>들</u>은 체육대회에 참석<u>들</u> 하니<u>들</u>?

나. 우선들 먹고들 나중에들 이야기하자.

다. 지금부터 재미있게들 놀고들 있어라.

(52)의 예문처럼 '들'이 두 번에서 세 번이나 나왔음에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 이처럼 문장에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국어의 복수 표지가 문법적으로 일치나 호응 관계를 이끌어 내는 구실을 하지 못하는 수의적인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이원근(1999: 127-128)은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담화토씨로 보는 거의 합당해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을 보면 그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포 환경이 유사한 담화토씨인 '요'와 '들'을 비교하여 살펴보자.

최동주(2000:81)에 따르면, 조사의 배열 순서상 '이/가'. '을/를'이 가장 뒤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어휘적인 요소나 통사적인 요소이외에는 '이/가', '을/를'의 뒤에

²¹⁾ 습관 첨사, 상황 첨사, 군더더기 등과 같이 불리는 담화적인 요소 '들'을 본 연구에서는 담화토씨라 통일하여 부르겠다.

나타날 수 없다. 즉, '요'와 '들'이 '이/가', '을/를'의 뒤에 첨가될 수 있다면, '요'와 '들'이 담화적 요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다.

- (53) 가. 효주가요 미희를요 웃겨줘요.
 - 나. *개들은 과자가들 좋대.
 - 다. *아이들이 친구를들 사랑합니다.

(53)에서 보면, '요'는 '이/가', '을/를'의 뒤에 첨가 되지만 '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직관에 따르면 가는 성립가능 하지만 (53나)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최동주(2000: 82)는 '요'는 반드시 조사 뒤에 쓰이지만 '들'은 조사 앞에서도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53다)는 '친구를들'이 아니라 조사 앞에 '들'이 나오는 '친구들을'이라고 했다면 성립하는 문장이다. 뿐만 아니라 '들'은 '요'와 달리 보조용언 구성이나 파생어, 합성어의 중간에 삽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는 '요' 뿐만이 아니라 '예', '그자', '말이죠'의 경우에도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 (54) 가. 아버지에게는요 사랑하는요 어머니가요 있어요.
 - 나. *아버지에게는들 사랑하는들 어머니가들 있어요들.
 - 다. 사람이예 사람을예 좋아하는데예 이유가예 있겠어예.
 - 라. *사람이들 사람을들 좋아하는데들 이유가들 있겠어들.
 - 마. 너는그자 먹는 것을그자 너무그자 좋아해그자.
 - 바. *너는들 먹는 것을들 너무들 좋아해들.
 - 사. 언니가말이죠 시집갔는데말이죠.
 - 아. *언니가들 시집갔는데들.

(5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 '예', '그자', '말이죠'의 경우에는 통사적 제약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해 '들'은 조사 뒤에서만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하는 모습 을 보인다. 비교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가'라는 주격조사가 외의 조사에 잘 결합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출현이 자유로운 담화적인 요소와는 달리 '들'은 통사적인 제약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들'을 담화적인 요소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2.2. '들'의 문법 범주

앞에서는 의존명사, 통사적 파생접미사, 특수조사, 담화토씨로 다양하게 범주를 정하고 각 판별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그 범주들이 '들'과 성격과 적합한 지를 알아보았다.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55) 가. 연필, 지우개, 공책 들이 있다.
 - 나. 학생들, 선물들
 - 다. 다들 공부들을 열심히들 한다.
 - 라. 집에 빨리 좀 들어가거라들.

(55가)는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이어 말할 때 맨 끝에 쓰이어 그 여러 사물을 모두 가리키거나 또는 그 여러 사물 밖에 같은 따위의 사물이 더 있음을 뜻하는 의존명사이고(표준국어대사전1999: 1742), (55나)는 체언을 복수로 만들어 주는 접미사, (55다)는 체언이외의 부사나 용언 등과 같은 품사 아래에 붙어 쓰이어 문장 상에 문법적인 관계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특수조사로 보았다. (55라)의 경우에는 토씨(조사)에 '들'이 결합한 것으로 특수조사와 같으나, 담화적 요소를 보이는 경우라 담화토씨라 따로 분류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들'의 범주가 정확하게 나눠진다면 좋겠으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 혼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들'의 문법 범주를 다른 경계보다 특수조사의 기준과 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들'을 특수조사의 범주 안에 있음을 먼저 밝힌다. 의존명사와 통사적 파생접미사, 특수조사, 담화토씨의 경계가 모호한 이유는 자립적으로는 쓸 수 없는 의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의존성은 연구자들마다 다른 범주로 지정하고 있으며 어떤 연구에서는 조사로 다루어진 형태가 다른 연구에서는 파생접미사나 의존명사, 어미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나열하는 개념으로 다른 범주들과의 차이를 구분 할 수 있고 그로인해 띄어쓰기가 전제 되어 있다. 또한 체언과 결합한다는 점. 그리고 '들'이 '등'과 '따위'와 교차하여 사용하여도 제약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문법적으로 어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55가) '들'을 의존명사라 인정할 수 있다. 체언외의 부사와 용언과 결합이 반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들'을 의존명사로만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나열하는 경우에만 의존명사로 쓸 수 있다고정리한다.

가장 논의가 많은 것은 '들'을 통사적 파생접미사로 볼 것이냐 특수조사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통사적 파생접미사와 특수조사가 형태적 ·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첫째로 어기에 통합되는 위치가 비슷하다는 점(홍사만 2002: 98), 둘째로 격조사와 관련성을 맺고 의존적이라는 점, 셋째로 형식성에서 탈피하여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통사적 파생 접미사로도 특수조사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들'의 경우에는 완전한 통사적 파생접미사로 보기도 힘들고, 완전한 특수조사로 보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문법 범주를 정하기 힘들기는 하나, 새로운 범주를 다시 설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범주와의 공통성을 가지고 정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또한 '들'은 통사적 파생접미사보다는 더 많은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에 특수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를 보더라도 '들'을 접미사로 보던 것이 점차 특수조사로 보는 견해가 많아 졌음은 이를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들'이 구 이상의 단위에도 붙으며, 그 의미도 선행 어기뿐 아니라 주어에까지 미쳐서 단어를 뛰어넘는 통사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임홍빈(1998)은 통사적 파생접미사로 보았다. 그러나 '파생'은 단어 이하의 어기에 결합하는 것이므로 구 이상의 단위에 붙는 '통사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이지연

(2006: 61)은 주장한다. 또한 조사도 통사적 파생의 범주에 든다고 말하면서 조사와 접미사를 같은 맥락으로 포괄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 통사적 파생접미사를 인정하게 되면 조사라는 범주는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사적 파생'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복수 표지인 '들'을 필요로 하는 요소가 꼭 '들' 앞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며 문장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을 통사적 접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 (56) 가. 왼쪽으로 돌아들 가세요.
 - 나. 방에들 계시니?
 - 다. 아프지들 마세요.
- (56)은 생략된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낸다. 통사적 파생접미사가 주어까지 미치는 통사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문장 안에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 이처럼 통사적 파생접미사로는 '들'의 모든 속성을 설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동주(2002: 72)에 따르면 '들'이 조사와 함께 쓰일 때 조사와의

배열순서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통사적 파생 접미사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 (57) 가. 여기<u>까지들</u> 같이 왔어?나. 어서 집에들 들어갈라.
- (58) 가. 집<u>이나들</u> 가지.
 - 나. 공부<u>들이나</u> 열심히 좀 해.
- (59) 가. 다큰 애들 대낮에 누가 차에 태웠을 리두 없구 지발루<u>들</u> 어디 간건가? (최동주 2000: 72)
 - 나. 동물들로 태어나고 싶니?
- (57)은 '들'이 조사 앞에 나오기 힘든 예이고, (58), (59)는 각각 조사 '이나'와

'으로'가 '들'과 결합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는 '들'이 조사의 배열순서가 규칙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통사적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최동주(2000: 73)은 시사하고 있다. 그는 통사현상에 있어서 낱말은 '섬(island)'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통사적인 요소가 낱말의 사이에 개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아래에서 보듯이 '들'이 파생어나 합성어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통사적인 현상이 아님을 설명한다.

(60) 가. <u>빌빌들거리다</u>, 데려들가다

나. 그러지 말구 일어들나.

(최동주 2000: 73)

이처럼 '들'이 명사구, 부사구, 동사구 또는 절을 보어로 취할 수 있고 어근을 보어로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사적 파생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점도 나타났다.

'들'을 특수조사로 보는데 있어서도 왕문용 · 민현식(1993)은 '들'이 특수조사와 쓰임이 유사하지만 분포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공기들', '*물들'과 같은 결합이 비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들'이 셀 수 있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들은 비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왕문용 · 민현식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을 아래의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다.

(61) 가. 고생들 하셨습니다.

- 나. 운동들을 잘한다.
- 다. 청소들 좀 깨끗하게 하지?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복수인 주어가 나타나 있다면 문장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 또한 국어에서 (61)은 당연히 주어의 생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 립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고생들'로만 볼 때는 '고생'이 셀 수 없기 때문에 '고생 들'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접미사가 붙으면 새로운 단어가 생성되는 데 '들'이 붙은 단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접미사를 '들'의 범주로 상정할 수 없음을 나타내 주는 하나이다. (61)이 사용가능한 문장이라는 것은 '들'이 셀 수 있는 명사로만 결합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 주고, 선행어의 결합에 상관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수조사와 담화토씨의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는 조사의 하위분류로서 기능이 같다는 점에 있다. '들'이 특수조사가 가지는 통사적 특성은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그 의미적 특성인 담화적 요소를 부각시킨 것, 문법 범주로 인정되지 않고 수의적이라는 점 이외에는 눈에 띄는 다른 점을 찾기 힘들다.

이처럼 '들'이 유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존명사와 접미사, 특수조사, 담화토씨는 구분이 확실치 않은 유동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들'의 문법 범주를 확실히 규정해야 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성격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들'은 분포 위치에 따라 명사가 선행하고 나열하는 기능을 할 때는 의존명사, 그 외에는 특수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Ⅲ. '들'의 의미 기능

3.1. 복수성

3.1.1. 명사의 복수성

'들'의 복수성을 알기 위해서는 '들'의 선행 성분으로 오는 명사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한다. 특히 국어에서는 '들'이 사용되지 않아도 복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들'의 선행 성분의 복수성 유무는 '들'의 존재의 여부와 의미 결정 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여기서 '들'이 있는 경우를 '들'복수형이라고 하고, '들'이 없는 경우를 무표형 명사²²⁾임을 다시 밝힌다.

강범모(2007: 10, 24-25)에서도 무표형이 단수와 복수를 모두 표시할 수 있지만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복수형을 쓰는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전영철(2007: 326)에서도 가산 명사가 복수의 의미로 사용될 때 항상 복수표지가 붙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수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뿐, '들'의 사용 유무가어떤 의미적인 차이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남순(1982)은 가산성으로 인해 무표형 명사를 단수로만 보았다. 또한 단수로 처리한 사람으로 노은주(2008)가 있는데 아래 예문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중 가장 최근의 연구인 노은주(2008)의 주장을 토대로 반례를 제시하며 무표형 명사가 단수와 복수 둘 다의 성격을 지난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설명하겠다.

²²⁾ 이 장에서는 '들'복수형과 비교하기 위한 결합으로 '들'이 결합되지 않고 명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표형 명사라 부르기로 하고 다른 장에서는 그 문맥의 중요도에 따라 무표형과 무표형 명사를 알맞게 사용할 것이다.

(62) 가. <u>학생</u>이 왔다

나. 학생들이 왔다.

명사를 단수로만 보는 노은주(2008)의 설명대로라면 (62가)의 '학생'은 단수로서 '학생 한명이 왔다'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사를 단수와 복수의 의미를 지녔다고보는 본 연구에서는 (62가)에서 '학생'은 한 사람(단수)일 수도 있고 한 학생 단체(복수) 일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단지 (62가) 문장으로는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만약 구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또 (62가)를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동일한 직업이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둘셋이 온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데 같이 온 사람들 각각을 따로따로 문제 삼지 않을 경우에 사용된다고 전영철(2004: 29)은 설명한다. 이도 결국은 복수를 의미한다. (62나)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누가 읽어도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들'이 붙지 않는 무표형 명사는 문장에 따라 구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뿐, 단수와 복수 두 의미로 쓰일 수 있다. 노은주(2008)의 주장을 더 살펴보자.

(63) 가. 한 학생이 전화를 걸어 면담을 신청하였다.

나. 그 <u>학생</u>은 취업 문제를 상담하고 싶어 했다.

(노은주 2008: 43, 밑줄은 필자)

- (64) 가. 많은 <u>학생</u>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 나. 참가 신청을 낸 학생이 많았다.
 - 다. 참가 신청서를 내지 않은 학생이 많이 참석하였다.

(노은주 2008: 43, 밑줄은 필자)

위의 예문을 (63가), (63나)를 보면 명사 '학생'은 단수의 의미를 지녔고 (64가), (64나), (64다)의 명사 '학생'을 보면 복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문장이다. (64)의 예문은 '들'복수형이 붙지 않았지만 (64가)는 '많은'과 (64나)는 '많았다'라는 수량형용사가, (64다)는 '많이'라는 부사어로 학생이 한명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무표형 명사는 단수만을 나타내고 복수를 나타내는 수식어나, 서술어, 부사어와 함께 쓰이면서 복수성을 나타낸다고 노은주(2008)는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63)의 예문을 가지고 명사가 단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학생' 그 자체가 단수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생'에서 '한', '그학생'에서 '그'라고 하는 한정사가 붙음으로서 단수로 한정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64)의 예문도 마찬가지다. '많은', '많았다', '많이'가 붙으면서 복수성을 띄는 것이지, 무표형 명사 자체가 단수이라는 조건을 설명하기에는 노은주(2008)의 논의에 부족함이 있다.

(65) 가. 한 학생

나. 각 학생

(노은주 2008: 52)

노은주(2008)의 주장대로라면, (65가,나)는 단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65가)는 무표형 명사 '학생'이 단수로 보면 '한 명의 학생'으로, (65나)는 '각 학생 한 명'과 '각 학생 집단'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65가)의 경우는 '한'이 결합하였기 때문에 단수로 본 것이지, '한'이 결합하지 않았다면 복수의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아래의 예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보인다.

(66) 가. 이 학생이 그 과제를 제출하였다.

나. 나는 그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읽어 보았다.

(노은주 2008: 52. 밑줄은 필자)

(66)에서도 '학생'은 단수로서의 해석만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노은주(2008)는 무표형 명사가 단수로서 중의적이지 않다고 반박한다. 즉, 강범모(2008: 134)는 한 정사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무표형의 단수적 해석이 거의 고정된 문법화로 파악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그'와 같은 한정사와 결합되었다고 해서 무표형 명

사 '학생'이 단수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이'와 '그'가 함께 나타났다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이런 몇 개의 예문만을 가지고 단수로 해석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67) 가. 한 학생을 만났다.

나. [?]한 학생들을 만났다.

(67가)는 명사 '학생' 앞에 '한'이라고 하는 수량사가 들어 있으므로 복수라는 의미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단수가 되어 버린다. 무표형 명사에서 한정사와의 관계만생각한다면, (67나)의 경우는 어색한 문장으로 보일 수는 있다. (67나)를 비문으로보는 경우에는 '한'이라고 하는 수량사가 들어 있어 단수로 해석하였으나 뒤에 '들'이 들어가면서 복수의 의미가 결합 되어 맞지 않는 문장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67가)에 비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뿐 (67나) 또한 사용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명사에 단수와 복수 두 가지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수에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집단성과 개별성이다. 이부분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67나)의 '학생'의 경우 '하나하나 개별적인 학생'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 학생이라는 복수 개념으로 보고 거기에 '들'복수형이 붙어서 개별성을 띠게 된다고 파악되면 (67나)는 자연스럽게 성립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으로 보면 수량을 표현하는 수량사와 한정적 표현인 '그'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68) 가. 세 사람은 만났다.
 - 나. 세 친구는 노래방에 갔다.
 - 다. 두 개의 사과를 맛있었다.
- (68') 가. 세 사람들은 만났다.
 - 나. 세 친구들은 노래방에 갔다.
 - 다. 두 개의 사과들을 맛있었다.

위의 (68)의 예문에서 보듯이 수량사+무표형 명사가 나타나는데, 노은주(2008)의 주장처럼 무표형 명사가 단수로만 처리 된다면 복수성을 나타내는 '세, 두 개'와결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68)와 (68')의 예문은 둘 다 사용가능하다. 이는 무표형 명사에 단수와 복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 더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들'복수형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본 연구의 주장이다. 즉, '그'와 같은 한정적 표현이 무표형 명사에 결합되면서 복수성을 지닌 무표형 명사는 단수로 한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복수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명사자체의 성격을 복수성과 집단성으로 보고 있는 임홍빈(1998: 536-539)에서도 잘나타난다. 또한 백미현(2002)에서도 무표형 명사는 단수나 복수를 둘 다 의미할수 있고 '들'복수형은 복수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무표형 명사에 복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는 의미상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명사에 단수와 복수의 의미가 둘다 존재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무표형 명사는 복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아무런 제약이 없고 그 자체로만 존재할 때는 그 기능을 숨기고 있는 것이지 아예 복수성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며, 수량 표현이나 담화적 요소가 나타날 때에는 복수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정사가 붙으면서 단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표형 명사 그 자체를 단수로 단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무표형 명사의 중의성 때문에 '들'의 결합이 명확하고 규칙적이지 않다고 본다.

3.1.2. 주어의 복수성

(69) 가. 밥들 먹었니?나. 잘들 한다.

(69)의 표현처럼 대부분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주어가 아닌 성분에 '들'이 나타나고, '너희들 밥은 먹었니?', '너희들은 잘 한다.'와 같이 주어에 복수가 나타나면 주어 이외의 성분에 복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너희들 밥들 먹었니?', '너희들은 잘들 한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앞의 문장이기 때문에 그 표현에 맞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어에 복수성이 없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주어가 생략되어도 복수성이라는 의미 속성이 다른 성분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주어가 생략된 경우 다른 성분에 복수성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주어에 복수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6') 가. (손님들) 왼쪽으로 돌아들 가세요.

나. (이모들) 방에들 계시니?

다. (할아버님들) 아프지들 마세요.

(56')의 예문을 보면, 주어가 생략되어도 나타날 수 있는 문장이다. (56'가)에는 '손님들', (56'나)에는 '이모들', (56'다)에는 '할아버님들'이 들어가서 성립 돼야 하는데, 주어가 생략되었고 그 대신 문장 내의 다른 성분이 '들'과 결합하였다.

최형강(2005: 269)은 '들'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의 관련성보다는 참여자나 그 행위를 앞으로 할 대상인 청자²³⁾와의 관련성에 따라 존재 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주어의 복수성과 청자 지향성이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70) 가. 철수야, 영이야, 여기 있는 그림과 책을 잘들 봐 둬.

나. 철수야, 영이야, 수학과 영어를 열심히들 공부해.

(최형강 2005: 270, 밑줄은 필자)

최형강(2005: 270)의 해석에 따르면, (70가)에서는 '잘들'은 '철수와 영이'에 대한 관련성이 '그림과 책'에 대한 관련성보다 크다고 본다. 즉, '철수야, 영이야, 여

²³⁾ 최형강은 청유문, 명령문, 의문문이기 때문에 청자라고 표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어로 사용할 것이며 행위 참여자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 볼 것이다.

기 있는 그림을 잘 봐 둬'와 '철수야, 영이야, 여기 있는 책을 잘 봐 둬'의 결합한 것이 (70가)가 아니다. '철수야, 여기 있는 그림과 책을 잘 봐 둬'와 '영이야, 여기 있는 그림과 책을 잘 봐 둬'가 결합한 것이 '철수야, 영이야, 여기 있는 그림과 책을 잘들 봐 둬'인 것이다. 이때의 '들'은 '그림과 책'이 하나 이상의 대상물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에 '철수'만이 아니라 '영이'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70나)의 '열심히들' 역시 '철수와 영이'에 대한 관련성이 '수학과 영어'에 대한 관련성보다 크다. 즉, '철수야, 영이야, 수학과 영어를 열심히들 공부해'는 '철수야, 영이야,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와 '철수야, 영이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를 합친 것이 아니라 '철수야, 수학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와 '영이야, 수학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와 '영이야, 수학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를 합친 것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선행 성분의 복수성이 아니라 그 문장의 주어, 즉 앞으로 일어날 행위의 참여자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주어의 복수성을 의미한다면, 일반 평서문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청유문, 명령문, 의문문과 같은 형태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 (71) 가. ^{?*}당신들은 열심히 일을 해들.나. ^{?*}당신들은 먹을 음식이 있어들.
- (71') 가. 당신들은 열심히 일을 해들?나. 당신들은 먹을 음식이 있어들?

위의 예문(71)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평서문이기 때문이다. (71')과 같이 의문문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문장이 된다.

다시 말하면, 어말어미와 '들'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들'과 결합하는 문장이 복수의 주어를 나타낼 수 있는 의문문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주어에 복수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24)[야만인들이 음악을 좋아할까]들'이 의문문이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임홍빈1998: 53-53)? 주어를 지향하는 의문문이 아니라 '나'에 대한 독백조의 의문문이라서 주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야 만인들이 음악을 좋아할까]들'을 직접 야만인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 쓰면, '야만인들아, 이 음악을 좋아해들?'이라고 쓸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자, 즉 주 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의문문일 때 가능한 것이다.

(72) 가. (여러분) 안녕하세요들.

나. (아주머니들) 이 물건 좀 사지들.

위의 (72)와 같이 서술어의 종결형과 결합하는 '들'은 행위자나 주어 전체를 하나로 묶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행동의 복수성으로 보는 입장은 이차적인 부분으로이 부분에서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즉, (72가)에서 '안녕하세요들'이 '안녕하세요'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녕하세요'를 듣는 청자인 여러분과 관련된 것이다. (72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물건 좀 사지들'에서 '이 물건 좀 사지'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사는 사람과 관계를 가진다. 그렇다고 해서 '들'이 사건의 복수와 반복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를 아래의 '3.1.2. 사건의 복수성'에서 살펴 볼 것이다.

이런 특성은 '들'이 서술어의 연결형에 결합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73) 가. 애들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들 봐.

나. 애들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들 봐.

다. 철수야, 영이야, 관객을 붙잡지들 마.

(최형강 2005: 272)

위의 예문에서 보면, (73가), (73나)의 '들어들'의 '들'은 '애들아'와 관련되어 나타는 것이지, '여러 가지 얘기'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얘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말어미에 결합하는 '들'도 주어가 여럿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²⁴⁾ 물음표는 비문은 아니지만 쓰임에 있어서 어색함이 느껴지는 문장 앞에 넣는 부호이다. 이에 임홍빈 (1998)은 물음표를 두개로 나타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물음표를 한 개로 통일하게 표시하겠다.

수 있다. 즉, 행위 참여자(청자, 주어)의 복수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73다)의 경우에도 '철수야, 영이야'가 '들'과 관련된 것으로 '관객을 붙잡지 마'라는 말의 복수가아닌 것이다. 그러나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관객을 붙잡지들 마'라고했을 경우에는 '들'이 행위 참여자의 복수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행위의 반복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는 '들'의 복수성을 강조한 것으로 동시적인 사건에서 참여자만 복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후자는 '들'의 반복성을 강조한 것으로 시차가 있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후자는이전에 관객을 붙잡은 사건이 경험이 있었고 또 다시 관객을 붙잡는 경우에 쓰인다는 것이다. 이 후자의 경우처럼 사건의 반복성을 아래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이처럼 부사나 어말어미에 '들'이 결합하면서 '들'이 주어와 필연적인 관련성을 맺기 위해서는 그 문장이 주어를 상정할 수 있는 명령문이나 청유문, 의문문이어야 한다는 것을 최형강(2005: 274)은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들'이 내포절 밖에 위치하여 내포절 안의 복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참여자가 존재해야 한다고설명하였다. 그 문장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더라도 주어의 복수성을 전제로 하고 청자를 지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1.3. 사건의 복수성과 반복성

주어가 생략됨으로써 문장 내의 다른 성분에 '들'이 붙어 복수성을 띄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외에 다른 의미 기능도 나타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74) 가. 당장들 해주세요.
 - 나. 빨리들 챙겨서들 가져가세요.

예문 (74)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들'이 주어의 복수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주어가 '여러분들'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당장들'은 '여러분들'이라는 주어가 생략되면서 그 복수성이 옮겨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빨리'라는 자체에 복수성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당장'과 '빨리'에 해당되는 문제의 사건이 복수임을 드러낸다. 사건의 복수성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문장의 경우에는 사건이 시간적으로 차이를 두면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건의 반복성이라고 한다.

최형강(2008)에서는 이 반복성을 문장 전체의 의미를 통해 획득되는 이차적인 의미 기능으로 보고 시차성이 있는 담화적인 상황이 주어질 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시간 개념을 표시하기 위한 명사나 서술어 등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들'만을 가지고 시간의 차이를 확보하게 될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75) 남편은 아이들을 학교에들 데려다 주었다.(최형강 2008: 333)

위의 예문은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고 주어가 복수성을 띄는 성분이 아니나, '들'이 여러 성분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와 관련지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처럼 '들'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복수성, 그 다음이 반복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복수성에서도 주어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해당 사항이 없을 때 사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일차적 의미 기능인 복수성과 관련하여 예문 (75)을 살펴보면 주어는 복수를 나타낼 수 없고 '학교에들'이 '아이들'의 개별적으로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성을 강조했다는 입장은 잉여적인 부분이될 수 있다. '아이들'에서 개별성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에들'에 '들'을 붙였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데,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래서 마지막 반복성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학교'가 '아이들'마다 달라서 각각 데려다 줘야 했다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남편이 '아이들'한 명씩 시차적으로 데려다 줬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간

단히 언급하자면, 개별성은 동시적인 복수성과 시차적인 반복성 모두와 관련이 있다. 문법적인 요소 뒤에 쓰인 '들'이 개별성을 가질 경우에 시차적인 반복성으로 확대·변화될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최형강 2008: 224). 따라서 (75)의 해석은 후자가 더 알맞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들'의 잉여성을 배제하고 존재에 이유가 있다는 관점으로 보기때문에 한 문장에 '들'이 두 개 이상 나타난다면 반복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 (76) 가. 나는 친구들에게 놀이동산에 가자고 했다.
 - 나. 나는 친구에게들 놀이동산에 가자고 했다.
 - 다. 나는 친구들에게들 놀이동산에 가자고 했다.
 - 라. 나는 친구들에게들 놀이동산에들 가자고 했다.
 - 마. 나는 친구들에게들 놀이동산에들 가자고들 했다.

위의 예문은 모두 '들'이 나타나는 문장이다. '들'의 선행 성분은 '친구'로 개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개별성으로 인해 복수성과 반복성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즉, 복수성과 개별성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은 의미적 차이가 조금 나타낼 뿐, 성립이 가능한 문장이다. (76가)는 '나'가 한 장소에서 동시에 함께 있는 몇몇의 '친구에게', (76나)의 경우에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놀이동산을 가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 각각에게 가서 놀이동산 가라고 말했다볼 수 있다. 그러나 한 아이에게 시차를 두고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는 반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위에서 말했듯이, 복수성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76마)의 경우에는 친구들 각각에게 다 같이 놀이동산에 가자고 여러 번 말한 것을 의미하므로 시차성있는 반복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들'이 문장 안에서 많이 나타날수록 복수성과 함께 반복성을 띄고 이로 인해 '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홍빈(2000, 2005: 213)은 개별성을 나타내는 말 뒤에 직접 '들'이 쓰일 때에는 개별적인 복수의 의미를 띠기 쉽고, '에게'와 같이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요

소 뒤에 쓰일 때는 사건 복수적인 의미를 띠기 쉬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석할 때에 비해 이론적으로 너무나 단순한 설명으로 문장 전체의 의 미를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형강(2008: 338)의 설명대로, '들'의 의미를 파악함에 앞서 주어를 가장 먼저 살펴보고 개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을 첫 번째로 하였다. 그러나 주어에 복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사건이 복수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한다. 그것으로도 한계가 있다면 다른 수식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들' 자체로만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문장 안에 '들'이 많이 분포한다면 반복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3.2. 개별성과 집단성

'3.1.1. 명사의 복수성'에서 무표형 명사가 복수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들'의 결합이 수의적이라 존재의 가치를 크게 보지 않고, 복수의 의미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만 보았다. 하지만 '들'의 유무는 실상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을 가졌고 그에 따라 의미 차이가 있음을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7) 복수 의미의 개념적 바탕, 의미해석, 그리고 언어표지(백미현 2002: 61)

가. 개념적 바탕	٦. 🔾	L. ()	Е.
나. 의미해석	단 한 명의 학생	하나 이상의 학생이 하 나의 단위형성	하나의 단위가 개별구 성원으로 해체됨.
다. 언어표지	무표형	무표 복수형(무표형)	'들'복수형25)

(77가ㄱ)는 단 한 명의 학생을 표현하므로 단수를 가리킨다. (77가ㄴ)는 하나 이

상의 학생이 존재하지만, 그 개체간의 분명한 경계가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 공간에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것이 존재하지만, 화자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여 무표형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반면 (77가ㄷ)은 큰 덩어리의 경계가 약해지고 그 안에 존재하던 학생이 개별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면서 경계가 약해진다. (77가ㄷ)과같은 개념적 바탕이 성립되는 경우에 복수 표지 '들'이 사용된다. 이처럼 무표 복수형과 들-복수형은 기본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무표 복수형은 집단성을, '들'복수형은 개별성을 대표적인 의미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26)

(78) 가. [?]학생이 각자 잘 했다.

나. 학생들이 <u>각자</u> 잘 했다.

(백미현 2002: 62, 밑줄은 필자)

위의 예문 (78)에서 '각자'라는 것은 한명 한명의 개별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복수성을 가진다. 이에 백미현(2002)은 복수의 개체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여 개체 간에 경계가 불분명할 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자'는 '들'과 함께써야 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개별성을 지닌 요소들은 개별성을 지닌 요소들끼리 이루어 졌을 때 문장이 어색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문 (78)을 통해서 '들'복수형은 개별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표 복수형이 개별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들'복수형에 비해 무표 복수형이 가진 개별성의 의미가 약하다는 것이다. 또 반대로 무표 복수형에 비해 '들'복수형이가진 집단성의 의미가 약하다는 것이다.

²⁵⁾ 백미연(2002)에서 '들'-복수형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시는 선·후행하는 성분과 연 관 될 때 사용할 것임으로 '들'복수형이라고 표기한다.

²⁶⁾ 개별성이라는 용어는 개체성, 개체화, 분산적 복수, 배분성 등의 다양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 별성으로 집합성, 집단성 등을 집단성이라고 통합하여 사용할 것이다. 또한 대표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 유는 하나만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성격을 중심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의 미한다.

(79) 가. 아이들이 제 각각으로 생겼다.

나. *아이가 제 각각으로 생겼다.

(백미현 2002: 62, 밑줄은 필자)

백미현(2002)은 '(77) 복수 의미의 개념적 바탕, 의미해석, 그리고 언어표지'를 바탕으로 (79나)가 어색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78)의 '각자'처럼 개별성을 가진 '각각'은 개별성을 가진 '들'과 함께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입장으로는 (79나)의 경우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들'복수형의 대표적인 성격이 개별성이기는 하지만 무표 복수형에 개별성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79나)의 '아이'가 집단성을 가진 복수로보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그 집단에 있는 아이들이 제 각각으로 생겼다는 의미로 받아드려질 수 있다.

'들'복수형은 개별성을 가진 요소와 결합하여야 자연스럽고, '들'복수형 그 자체로도 개별성을 지녔기 때문에 여기에 '각자, 각각'과 같은 개별성을 갖는 의미가 오게 되면 개별성을 강조 또는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집단성을 지닌 무표 복수형에 '각자, 각각'과 같은 개별성을 갖는 의미가 오게 되면 약하게나마 개별성을 띄게 된다. 단지, 부각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표 복수형으로 쓴 것이다.

이런 입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 (80) 가. 청소 당번들이/ 청소 당번이 각자 청소를 하였다.
 - 나. 친구들에게/'친구에게 각각 생일 선물을 받았다.
 - 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학생에게 성적표를 하나씩 나눠 주었다.

(80)은, 개별성을 표현하는 '각자'와 '각각', '쎅'이 '들'복수형과 결합한 문장과 무표형과 결합한 문장이다. 각자'와 '각각', '쎅'이 개별성을 나타내는 '들'복수형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무표 복수형과 쓰여서 비문이 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무표 복수형도 개별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1) 가. 우리들
 - 나. 저희들
 - 다. 너희들

(81)에서 '우리들', '저희들', '너희들'의 '우리'와 '저희', '너희'는 복수형으로 집단성을 보이고 있는 1,2인칭 복수이다. 집단성을 나타내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들'복수형이 아니라 무표 복수형이 와야 더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 '저희', '너희'와 같은 집단성에 개별성을 띠는 '들'이 결합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들'복수형이나 무표 복수형이 개별성과 집단성을 둘 다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81)의 경우는 '우리, 저희, 너희'라는 집단에 각 사람들이 개별성을 획득했음을 알 수 있다.

- (82) 가. 관중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
 - 나. 청중들은 나의 말에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 다. 국민들의 연호와 같은 환호를 받으니 행복하다.

위와 마찬가지로 '관중', '청중', '국민'과 같은 집단적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에 '들'복수형이 첨가되면 개별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82나)의 경우처럼 청중 전체가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청중 각각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82가), (82나), (82다)는 '관중', '청중', '국민' 개개인 한명씩을 지목하여 나타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임홍빈(1998)도 서술어에 관계없이 '들'의 집단성과 개별성을 모두 고유의 의미기능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외출을 했다'에서의 '들'은 '가족'이라는 집단성을 이루는 단어의 개별성을 나타내주고 '배추 포기들이 실하다'에서의 '들'은 '포기'라는 개별성을 이루는 단어에 집단성을 부가해준다고 한다면, '들'이선행하는 명사가 가진 의미와 상보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같은 주장은 최형강(2008: 323)에 주장에 따르면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는 집단을이루는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가족'에 집단성이 있는 것은 쉽게 확인되지만 '포기'

가 가진 개체성이나 '학생'이 가진 집단성은 쉽게 확인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명사 자체가 총칭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은 한, 의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명사의 의미에 개별성과 집단성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로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들'의 의미 기능이 개별성과 집단성, 양면을 둘 다 가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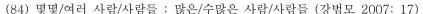
아래의 예문을 보면 개별적으로 쓰이는 수량 표현에서도 '들'복수형이 아닌 무표 복수형에도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들'복수형과 무표 복수형이 개별성 과 집단성을 둘 다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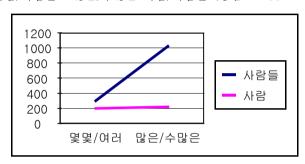
- (83) 가. 두 사람은/**두 사람들은 소풍을 갔다.
 - 나. 세 권은/?*세 권들은 소장가치가 있다.
 - 다. 두 남자는/^{?*}두 남자들은 미팅을 한다.
 - 라. 세 친구는/ **세 친구들은 놀이동산을 갔다.

정확한 수가 나오는 수사 표현에 명확하게 쓰이지 않는 '들'복수형이 함께 오면서 무표 복수형보다는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그러나 전혀 쓰이지 않는 문장은 아니다. 단지 (83)는 무표 복수형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83)의 '들'복수형이 상대적으로 어색한 문장이 되어 잉여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들'복수형에수량 표현이 결합되면 어색한 문장이 되고 추상적인 명사에 사용되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개별성을 가진 수사에 개별성을 굳이 첨가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혹시 첨가하더라도 사용되지 않는 문장은 아니므로 잉여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두 친구들이 서로를 위로하였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들'은 두 친구가 서로 다른 존재로 나타나 개별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문장이라 할 수 있다. 비문이 아닌 상대적으로 어색한 문장의 몇 개의 예문만을 가지고 '들'의 개별성을 판단할 수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들'복수형은 개별성과 집단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개별성이 나타난 정확한 수에서는 '들'복수형이 어색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강범모(2007: 23)는 수량 표현에서 '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것은

수사가 집단을 셀 수 있는 단위로 해체하여 개별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표 복수형을 쓰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모호한 수의 경우 그것이 개별성의 힘이 약하여 '들'이 쓰이면서 그 역할을 보충해 준다고 보기 때문에 모호한 수와 '들'복수형이 상대적으로 잘 쓰이며 정확한 수와 무표 복수형이 잘 쓰인다는 것이 강범모(2007: 23)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아래의 표에서도 나타난다.





(84)의 표는 '들'복수형과 무표 복수형이 복수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들'복수형이 무표 복수형에 비해 적은 수량 표현보다는 많은 수량 표현을 나타냄을 말해주는 표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들'에 '많은'과 '몇몇'이 결합했을 때, 더 어울리고 많이 쓰이는 것이 '몇몇 사람들'보다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들'복수형이 많은 수를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에서 개체의 구분이 더 힘들기 때문에 개별성의 필요가 더 생기고 그래서 개별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들'복수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강범모 2007: 24). 이를 통해 '들'복수형이 개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밝혀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이나 '많은'과 같은 명시적인 수량사는 양화적²⁷⁾ 요소로 이 긴 하지만 정확하게 몇 명으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집단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많은'이라는 집단성을 나타내는 요소에

²⁷⁾ 양화란 수를 헤아림을 뜻한다. 수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무리가 개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개별성은 배분성과 연결된다.(전영철 2007: 330)

'들'복수형이 오면서 개별성이 첨가된다. 즉, 상반대는 성격이 한 문장에서 만났을 때 상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85) 가. 많은 학생들이 있다.

나. 많은 학생이 있다.

위의 예문에서 (85가)를 표(84)로 해석해 보자면, '많은'과 '학생들'이 결합하면서 개별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집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표 복수형 형태인 '학생'으로 써야 한다. (85나)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많은'과 '학생' 그 자체로는 집단성을 강하게 내포하기 때문에 집단성을 획득한다. 한마디로, (85가)는 개별적인 성격이, (85나)는 집단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많다'와 같은 술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개별성과 집단성을 들어내기 위해서는 '들'의 유무가 더중요하다는 것이다.

위에서는 개별성을 보이는 양화사적 요소를 살펴봤다면, 반대로 집단성을 보이는 술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86) 집단적 술어의 유형

가. 집단적 행동 술어 : 모이다, 포위하다

나. 상호적 술어 : 서로 존중하다

다. 협동적 술어 : 공감하다

(강범모 2008: 120)

강범모(2008: 120-121)에 따르면 (86나)의 술어들은 의미상 이미 양화의 의미를 일부에 포함하여 개별성을 띤다고 하였다. '서로'에는 어떤 것이 둘 이상임을 전제로 하고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개별성을 가진 '들'복수형이 나타나는 것이 집단성을 의미하는 무표 복수형보다 더 잘 어울려야 한다.

또한, 전영철(2007)은 '모이다', '흩어지다'는 내부 의미에 행동을 나타내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성을 띤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각자 모여라', '각자

흩어져라'를 제시하였으나, 반대로 '모두 모여라', '모두 흩어져라'의 경우도 성립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개별성 뿐 만 집단성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개별성을 띄는 요소에서처럼 술어의 의미보다는 '들'의 유무 차이가 개별성과 집단성을 나타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87) 많은 학생들이 각자 떠났다.

(87)에서는 '많은 학생'은 수량과 관련된 '많은'은 집단성에 가깝다고 보여 짐으로 개별성을 나타내려면 '들'복수형을, 집단성을 나타내려면 무표 복수형 써야 한다. 뒤에 '각자'가 나오면서 개별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들'복수형이 오는 것이 더자연스럽다. 그렇다고 '학생'이라는 무표 복수형이 오면 비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들'복수형과 무표 복수형이 개별성과 집단성을 둘 다 내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들'은 의존적인 복수표지이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술어의 성격, 부사의 성격에 따라 약간씩의 의미 변화는 있었다. 그러나 '들'의 유무을 흔들 정도로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들'의 의미기능을 일원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즉, '들'복수형과 무표 복수형은 개별성과 집단성을 나타내는 중의적 성격이 나타난다. 그러나 '들'복수형이 대표하는 특성은 개별성, 무표 복수형을 대표하는 특성은 집단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며 일반적인 성향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개별성을 나타내는 '들'복수형에는 개별성을 나타내는 요소도 올 수 있지만 집단성을 가진 요소도올 수 있다. 개별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개별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지만 집단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상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집단성에서 '들'복수형의 개별성을 미세하게나마 들어낸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각각', '각자'와 같은 개별성을 띄는 부사가 오는 경우에는 '들'복수형이 잉여적인 것이 아니라 더 개별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무표 복수형은 집단성과 함께 어느 정도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과 같은 집단성과 '들'복수형이 결합한다면 약하게나마 개별성이 나타나고, 무표 복수형이 오는 경우에는 집단성을 강하게 들어낸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문제는 집단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명사, 부사, 술어 등이 확실히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문장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의 개별성과 집단성 또한 달라질 여지가 충분이 있다고 본다.

3.3. 유정성

'3.2. 개별성과 집단성'에서 '들'-복수성은 개별성을 띄는 것으로, 여기서 개별성은 유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유정성이 높은 것은 유정성이 높지 않은 것보다 셀 수 있는 성분을 지녔고 그래서 비교적 개별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 개별성이 높다는 것은 개별성을 지닌 '들'복수형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유정성을 지닌 유정물이 상대적으로 개별성을 띄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해되고 이로 인해 '들'로 개별성을 표시하기가 쉽다.

반면 무정물은 실제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의 분리되지 않는, 또는 분리할 필요가 없는 하나의 집단으로 파악함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관계는 아래를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이 가능하다.

(88) '들'의 사용빈도28)(이지연 2008: 35)

	사람	동물	물건	추상명사	동사성명사
사용빈도	156	2	24	18	17
백분율	72%	1%	11%	8%	8%

²⁸⁾ 이지연(2008: 34)이 MonoConc Pro 2.0을 이용하여 검색한 것으로 복수 형태소뿐만 아니라 '들판', '들어가다'등 불필요한 문장을 포함, 총 48,927개의 문장이 제시되었고 불필요한 문장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자동 검색 값인 매개변수를 100으로 지정하여 1%에 해당하는 489개만을 무작위로 검색한 후 조사에 필요 없는 '하는 말을 들어보니'와 같은 문장을 제외한 275건을 분석한 것이다. 또한 원래의 제목은 '-들이 접미사로 사용된 경우'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들'이 얼마나 많은 유정성을 지닌 명사와 결합을 나타내느냐를 위해 필요한 자료이므로 '들의 사용빈도'로 바꾸었다.

인간과 관련된 명사에서, 동물, 물건, 추상물, 동사성 명사에 이르기까지 명사의 유정성과 '들'복수형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위에 관계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인 '사람'이나 '학생'이라는 명사는 개별적 복수 개념이 매우 자연스럽게 적용되었다. '들'이 쓰인 명사 유형 중에서 인간, 적어도 인간과 관련된 의미의 명사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무생물 명사, 추상 명사, 동·식물 명사 순이었다. 특히 '들'과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단어는 '사람'이었다. 여기에서도 유정물을 지닌 '사람'이 '들'과 잘 결합함을 보였고 이는 결국 유정성과 개별성이 연결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89) 유정성과 '들'복수형 관계(백미현 2002:67)

++<----->--인간 동물 물건 추상물 동사성 명사 유정성 '들'복수형 가능성

(89) 백미현(2002)의 주장도 (88) '들의 사용 빈도'처럼 '들'에 인간이 결합하는 빈도수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동물, 물건, 추상물, 동사성 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90) 빈도 상위 100개 명사의 의미부류(강범모 2007: 15)

	'들' 명사	명사 전체
사람 명사	77개	15개
동물 명사	1개	0개
사물 명사	22개	85개

강범모(2007:15)의 표에서도 빈도 상위 100개 명사에서 사람 명사에 '들'이 결합한 경우가 77개이고 그냥 명사만 오는 경우는 15개였고, 사물 명사에 '들'이 결합한 경우는 22개, 명사만 오는 경우는 85개로 더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물보다 사람의 경우 '들'복수형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복수성과 개별

성이 더 잘 인지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자료이다.

(91)	'득'과	여어29)되는	- 명사	유형(백미현	2002:	67)
()1)	2 -	1 - 1 7 - 1	- 011	11 0 7 7 1 1	1 40004.	\circ

명사종류	횟수(개)	비율(%)	예
인간 및 관련 명사	214	86	사람, 부인, 거지, 벼슬아치, 유림
무생물 명사	19	8	건물, 연장
추상명사	10	4	문제, 행적
동·식물 명사	5	2	나무
총	248	100	

(91)의 표를 분석해 보면, '들'복수형이 나타나는 비율이 무정물, 추상명사, 덩어리(mass)명사, 혹은 동사 파생명사에 비해 인간과 관련 명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들'이 유정성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인간과 관련된 명사는 유정성을 지니고 있고 그런 유정성이 높을수록 '들'복수형과 결합하는 가능성이 많음을 보여준다.

백미현(2002: 67)은 유정물에 비해 무정물, 추상명사, 덩어리(mass)명사, 동사 파생명사가 더 복잡한 의미가 보이고 그 의미를 설명을 위해서는 국어에 나타나는 주어의 제약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을 시작하는 참여 자는 사건의 마지막으로 해석되는 참여자보다 유정성이 높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두 개의 참여자가 나타날 때 주어에는 비주어에 비해 유정성이 좀 더 높거나같은 명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 (92) 가. 철수가 밥을 먹는다.
 - 나. *밥이 철수한테 먹힌다.
 - 다. 밥을 철수가 먹는다.
 - 라. 밥이 철수에게 먹힌다.

(92)은 '철수'와 '밥'이라는 두 개의 참여자가 존재하고 주어인 철수가 비주어인 밥보다 유정성이 높기 때문에 (92가)는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92나)는 주어의 위

²⁹⁾ 연어(蓮語):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의미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말(naver 국어사전)

치인 '밥'이 비주어인 '철수'보다 유정성이 낮기 때문에 어색한 것이다. (92나)는 무정물 주어와 유정물 목적어를 피하기 위해 다른 형식적 장치가 이용되어야 한다. 무정물 주어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92나)에서 (92다)와 (92라)로 바꾸어 쓰면 된다. (92다,라)의 경우에는 유정물 주어가 요구되는 동사에 무정물 주어가 오게 되면 무정물 주어는 원형적인 유정물 주어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고 사건을 시작하는 참여자처럼 행동한다. 이는 주어가 비주어에 비해 유정성을 높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영어가 활발히 들어오면서 그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책이 잘 팔린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책이 잘 팔리는 것은 책에 전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그것을 판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들'과 관련된 유정성을 다루기 위해 무정물에 대해 언급한 것이므로 이 이상 더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어가 비주어보다 상대적으로 유정성이 높다면, 개별성을 띠는 '들'복수형은 주어 명사에 흔하고 이를 주요 문장 성분과 '들'의 분포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93) 주요 문장 성분과 '들'표지 분포(백미현 2002: 68) 주어(762:84%) > 직접 목적어(90:10%) > 간접 목적어(56:6%)
- (93)를 살펴보니, 주어 명사에 '들'이 직접 목적어와 간적 목적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직접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에 비해 '들'이 많이 나타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주어에서 유정성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이 직접목적어, 간접 목적어 순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 (94) 가. 시험 준비생들은 영암으로 떠났다.
 - 나. 영민이는 도서관들을 갔다.
 - (93)의 분포 양상을 보면서 (94가)를 설명하면, 주어인 '시험 준비생'이 '영암'이

라는 지역 명칭보다 유정성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험 준비생'에 '들'복수형이 나타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다. (94나)의 경우에는 주어인 '영민'이가 '도서관'보다 유정성이 낮기 때문에 '들'복수형이 주어가 아닌 비주어인 '도서관'에 붙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처럼 '들'이 유정성의 높음을 전제로 한다면 주어에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89)의 표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95) 유정성, '들'복수형 가능성과 직접 복수 의미(백미현 2002: 70)

++<---->--

인간 동물 물건 추상물 동사성 명사

유정성

유표형 가능성

직접 복수 의미

위의 논의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유정성이 높은 명사가 '들'복수형과 관계를 가진 다면, 유정성이 낮은 명사는 대개 집단성을 지닌 무표 복수형과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정성을 지닌 명사가 '들'복수형과 결합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무정물과 '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정물과 '들'의 결합은 문어보다는 구어적인 쓰임에서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구어 또한 국어에 속하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다.

(96) 나는 음식들을 만든다.

위의 (96)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어가 유정물이 아니고 비주어인 '음식' 또한 유정물이 아니지만 '들'복수형이 나타났다.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문장도 아니고 어색하지도 않다. 그 이유는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들'복수형에서 유정물이 무정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무정물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때문이다. 단지, '3.3. 유정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들'복수형이 유정물에서 많이 나

타나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일 뿐 무정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제시한 표를 통해 '들'복수형은 무표 복수형에 비해 유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들'복수형은 유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주어가 비주어에 비해 유정성이 높다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 주어에 '들'복수형이 많이 나타남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무정성을 띄는 명사에도 '들'은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고 그 개념적 바탕에는 개별성이 가지고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들'에 대한 문법 범주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의미 기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동안의 '들'의 사전 정의를 보면 초창기에는 접미사와 특수조사의 성격을 접미사로 통합하여 의존명사와 접미사, 이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설명되었다가 그 이후에 특수조사의 성격이 강함을 인지하고 분리시켜서 의존명사, 접미사, 특수조사로 보는 견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들'을 접미사로 보는 입장에 미흡함을 발견하고 통사적 파생접미사라는 새로운 용어로 '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들'의 문법 범주를 의존명사, 통사적 파생접미사, 특수조사로 구분하여 그 검증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들'의 특성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제시하였다. 특수조사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특수조사와 담화토씨를하위로 분류할 수 있다. 담화토씨는 담화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조사로 일반적인 성격은 특수조사와 같다. 이것이 본론의 첫 번째 장에 해당한다.

'들'의 문법 범주를 정하기에 앞서 '들'의 유무가 아니더라도 의존명사, 접미사, 특수조사, 담화토씨는 문법적으로 구분이 확실치 않은 유동성을 지녔다. '들'의 특성인 의존성과 관형어의 선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의존명사, 접미사, 특수조사, 담화토씨에서의 공통적 특성이다. 이런 한 부분만을 가지고 '들'의 범주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의존명사는 다른 범주와는 다르게 선행 성분과의 사이에 띄어쓰기가 나타나 있으며, 앞의 대상을 나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쉽다. 그래서 의존명사로서의 '들'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많은 논란에서 제외되었다.

문제는 그 밖에 체언과 용언, 부사 아래에서 연결되는 '들'이다. 형태적인 구성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인 구성과 통합한다는 점에서 접미사가 아닌 통사적 파생 접미사로 처리한다는 주장도 있고 분포상의 특징으로 인해 특수조사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들'이 구 이상의 단위에도 붙으며, 그 의미도 선행 어기뿐 아니라 주어에까지 미쳐서 단어를 뛰어넘는 통사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통사적 파생접

미사로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특수조사와 마찬가지임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사적 파생접미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통사적 파생접미사는 '통사적'이라는 개념과 단어 이하에 쓰이는 '파생'이라는 용어가 함께 존재하는 것부터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사적 파생접미사는 조사의 범주 안에 포괄하는 개념인데다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범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은 의존명사로서의 범주와 특수조사로서의 범주로 나뉘는 것이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본론 두 번째 장에서는 '들'이 어떠한 의미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들'의 의미 기능을 알아보기 전에 그 자체인 무표형 명사를 먼저 알아본 결과, 수량 표현이나 담화적 요소가 나타날 때를 제외하고는 단수와 복수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중의성을 띄었다. 이처럼 무표형 명사가 중의성을 지니기 때문에 '들'의 결합이 명확하고 규칙적이지 않게 되었고 무표형 명사의 복수성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들'복수형이 부산 어말어미에 나타나는 경우는 주어를 확인하고 생략되었다면 주어가 복수성을 나타내다가 다른 성분으로 옮겨갔을 확률이 높다. 주어가 생략된 경우가 많고 청유문, 명령문, 의문문의 형태일 때가 많았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청자의 복수성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청자 지향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복수성을 보이지 않는 주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분에 복수성이나타났다면, 행위나 사건의 복수로 받아들어야 한다. 이처럼 일차적인 의미는 복수성이고 그 복수성에서도 먼저 주어를, 그 다음이 사건이다. 이차적인 의미 기능은 반복성인데, 시차성이 있는 담화 상황이 나타날 때 보인다.

둘째, 여러 개체를 분리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즉, 개별성이 나타난다. '들'복수형은 개별성을, 무표 복수형은 집단성을 띤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의미 기능으로, '들'복수형은 개별성과 집단성을 둘 다 가지고 있으나 개별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표 복수형도 마찬가지로 개별성과 집단성 둘다 가지고 있으나 집단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개별성을 가진 성분+개별성을 가진 성분', '집단성을 가진 성분+ 집단성을 가진 성분'이 결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들'복수형과 무표 복수형에 '각각'과 '각자'와 같은 개별성을 나타내는 부사가 오게 되더라도 둘 다어울린다. 이처럼 '들'복수형과 무표 복수형은 개별성과 집단성을 둘 다 가졌다고볼 수 있다. 집단성을 나타내는 '관중', '청중'의 경우에 무표 복수형이 결합해야 하지만, '들'복수형이 오게 되면 개별성을 집단성보다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의 개별성이 나타난다. 집단성을 나타내는 술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론상으로는 무표 복수형이 결합되어야 하지만 상대적 차이로 인해 '들'복수형은 개별성을 더 강조하고, 무표 복수형은 집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것이든 필요한의미에 따라 쓰면 된다. 개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집단성을 띄는 명사나 부사술어에 '들'복수형이 결합하면 되고, 집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별성을 띄는 명사나 부사, 술어에 무표 복수형이 나타나면 된다. 한마디로 '들'복수형은 개별성을,무표 복수형은 집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반대의 의미를 가진 선행 성분을 상보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들'복수형에서 유정물이 무정물보다 많이 쓰인다. 유정물인 '사람'과 무정물인 '밥'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사람들'이 '밥들' 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자연스럽다. 또한, '사람들'은 셀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명사일수록 개별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유정성이 낮은 명사들은 대개 복수성을 표현하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복수성과도 관련이 있다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들'복수형은 복수성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성, 집단성, 유정성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들'복수형은 상대적으로 개별성과 연관이 더 깊고 유정성이 높은 대상에 '들' 보다 잘 결합하기 때문에 유정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에 대해 정리하면서 반례를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논의를 이용하다보니 넓은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많은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다보니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계속 나오면서'들'에 대한 연구가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강범모(2007), 「복수성과 복수 표지: '들'을 중심으로」, 『언어학』 47, 한국언 어학회.
- 강범모(2008), 「두 가지 복수형의 의미 차이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 한국 언어 정보학회.
- 고영근(1974), 『국어접미사의 연구』, 백합출판사.
- 곽희남(2010), 「복수 표지 '들'의 문법범주와 의미 기능」,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본관(1993), 「국어 파생접미사의 통사적 성격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김나영(2006), 「국어 의존명사의 통합 양상 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74),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1, 문법연구회.
- 김현석(2006), 「특수조사의 의미 분석-'는, 도, 만'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노은주(2008), 「한국어의 무표형과 '들'-복수형의 의미」, 『담화와 인지』 15-1, 담화와 인지언어학회.
- 백미현(2002), 「한국어 복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9-2, 담화와 인지언 어학회.
- 서정수(1994), 『국어 문법』, 뿌리깊은나무.
- 손동원(2000), 「복수접미사'들'의 재고찰」, 『나랏말쌈』, 제15호, 대구대학교 학술논문.
- 손춘섭(1992).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보경(2000), 「국어 특수조사에 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창순(1975), 「국어 조사의 연구: 그 분류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67, 국

- 어국문학회.
- 심혜령(1998), 「통사적 언어 단위에 붙는 파생 접미사에 대하여」, 이상섭 편, 『사전 편찬학 연구』8, 한국문화사.
- 안효경(2001),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역락
- 오성애(2009), 「조선어 복수표지 "-들"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길림성민 족사무위원회.
- 옥정미(2000), 「현대 국어 복수 표지'들'의 연구」, 아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 왕문용·민현식(1993),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우형식(2006), 「한국어 의존명사의 분포와 의미 기능 분석-'바'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11집.
- 이데 카요코(2009), 「한·일 복수접미사 대조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 이지현(2006), 「한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8), 「한국어 2인칭 대명사에 따르는 복수 형태소 -들: "존대"표현으로서의 대용적 쓰임」, 『언어와 정보사회』,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 이영제(2004), 「특수조사'들, 요, 좀'의 통사론적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이원근(1999), 「토씨의 하위 분류 재고-'들·요'를 중심으로」, 『한글』 245.
- 이남순(1982) 「단수와복수」, 『국어학』11, 국어학회.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2』, 태학사.
- ____(1999),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____(2000), 「복수 표지 '들'과 사건성」, 『애산학보』24, 애산학회.
- 전영철(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2, 한국 언어 정보학회.
- 전영철(2007),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들'의 통합적 해석」, 『언어학』 49,

한국언어학회.

채 완(1977),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국어연구』, 39, 국어학연구회.

최동주(2000), 「'들' 삽입 현상에 대한 고찰」, 『국어학』 35, 국어학회.

최미경(2004), 「복수 표지'들'의 범주」, 『전농어문연구』 15, 서울시립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최우혁(2002), 「현대 국어 특수조사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은(1976), 「현대 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분류기준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현배(1937), 『우리 말본』, 정음사.

____(1946), 『우리 말본』, 정음사.

최형강(2005), 「보조사 '들'의 특성 연구」, 『어문학』 87, 한국어문학회.

최형강(2008), 「복수와 반복-'들'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27. 한국어의미학회.

하치근(1989), 『국어 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____(1993), 『국어 파생형태론』(증보판), 남명문화사.

____(2002), 『현대 우리 말본』, 박이정

허 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홍사만(2002), 『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역락.

동아 새국어 사전(2002), 두산동아.

민중판 밀레니엄 새로나온 국어대사전(2000), 민중판.

연세 한국어 사전(1999), 두산동아.

우리말 큰사전(1991), 한글학회.

표준국어대사전(1999), 두산동아.

Naver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573000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6943400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 학 번 20088032 과 정 석사

성 명 │ 한글: 황아영 한문 : 黃雅英 영문 : Hwang A-Young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파트 102호 507동

연락처 | E-MAIL : iing16@nate.com

한글 : 한국어 복수표지 '들'연구

논문제목 영어 : A Study on 'Deul' of Korean Plural Marker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0) 반대()

2011년 1월 일

저작자: 황 아 영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